

# 전통적 海軍戰略理論 수준에서의 북괴 海軍戰略 分析



海 軍 大 學  
少領 趙 玩 來\*

◇ 目 次 ◇

I. 서 論	3. 북괴 해군전략의 개념
II. 전통적 해군전략의 이론적 고찰	IV. 북괴 해군전략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
1. 해군전략의 개념과 구성	1. 북괴 해군전략에 대한 평가
2. 해군전략의 목적, 수단, 방법	2. 북괴 해군전략의 한계성
3. 전통적 해군전략이론의 사례 분석	3. 북괴 해군전략에 대한 대응책
III. 북괴의 군사전략과 해군전략	V. 결 論
1. 북괴의 군사전략	※ 참고문헌
2. 북괴의 군사력과 해군력 구조	

## I. 序 論

지난 50년간 북괴의 군사는 김일성의 전쟁관에 의해서 이끌려졌다. 그리고 김일성의 사후에도 그 기본 골격(骨格)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

\* 해군사관학교 및 해군대학 졸업, 국방대학원 졸업(군사전략학석사), 1급함 작전관, 3급함 함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전력계획처 투자예산편성과(現)

북괴는 국가 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로 공식화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북괴 군부는 혁명 2세대들에 의해서 세대교체가 되었는데, 이 중 군(軍) 실무 총책임자인 인민무력상에 해군사령관 출신인 김일철 차수를 임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괴의 군사에 있어 해군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욱 비중있게 다루어지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는 북괴의 경제상황과 관련 북괴 해군은 함정이 노후하고, 경제난으로 훈련도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투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북괴가 잠수함정 침투사건과 같은 도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에게서는 위험한 사고라 아니 할 수 없다. 역사적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열세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라 할지라도 해전에서 승리한 예가 많이 있었으며, 해군전략이 가지는 특성으로 비록 해군전에서는 패하더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도 많이 있었다.

기존의 북괴 군사에 관한 문헌은 주로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분야에 연구되어져 왔으며 해군전략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의 논문만이 발표된 실정이다. 북괴 해군과 관련된 논문은 해군대학에서만 두 편이 발표되었을 뿐, 연구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료의 부족과, 보안성 문제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한국 해군의 발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현재 발표되는 해군에 관한 논문들은 주로 해양전략 이론 분야와 평시 해군력 운용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해군전략에 관한 연구의 균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최근 북괴 군부의 변화와 함께 그 위상이 높아진 북괴 해군에 관한 연구서로서 연구목적은 ① 북괴의 해군전략 개념을 군사전략 개념과 연계하여 전통적인 해군전략이론 수준에서 분석, 북괴의 해군전략을 체계적이면서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②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으로 한국 해군의 대응전략 방안과 대비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또한 한국의 해군장교들이 북괴 해군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분석방법과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 Ⅱ. 전통적 해군전략의 이론적 고찰

### 1. 해군전략의 개념과 구성

군사전략 개념의 구성 요소인 목적(지향하는 목표)과 방법(행동방안) 그리고 수단(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으로 구성되는 개념과 연계시켜 볼 때<sup>1)</sup> 해전의 구성요소를 목적, 방법, 수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즉, 방법과 수단의 논의에서 전략의 요구에 의해 새로운 무기가 출현하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무기에 의해서 전략이 수립되었는지, 또는 기존의 무기체계에 바탕을 두고 전략이 발전하였는지에 군사전략 개념에 의하여 건설된 수단(군사력 또는 무기체계)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유추(類推)해 낼 수 있게 된다.<sup>2)</sup>

인류가 해양을 접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생활하여 오면서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해양의 이용과 관련해 벌이는 국가간의 전쟁을 무력사용의 측면에서 해전이라고 한다면, 해전은 전시 해양의 자유로운 사용의 보장과 적의 사용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즉, 해전전략(海戰戰略)은 해양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전투수단(무기체계)을 적절히 이용하여 목적달성을 위한 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로 요약될 수 있다.<sup>3)</sup>

즉, 해전수행을 위한 해군전략의 구성요소는 제해권 장악 또는 적의 제해권 장악 거부의 목적과 수단인 해군력,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한 전략(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최병갑 외, 『군사전략대강』 제1권 (서울 : 을지서적, 1988), p. 354.

2) 무기체계와 전략과의 상관관계는 교리 중심 사상과 무기체계 중심의 사상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는데, 해전에 있어서는 무기체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갑, "무기체계와 해양전략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1994), pp. 12~21.

3) 김종민, 『전쟁과 해양전략』 (서울 : 이성과 현실사, 1993), p. 79.

## 2. 해군전략의 목적, 수단, 방법

### 가. 해군전략의 목적

해군전략이란 국가전략의 한 구성요소인 해양전략의 목표를 조장하기 위한 해군부대의 운용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전략에 의하여 결정된 해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군부대를 사용하는 전략이다.<sup>4)</sup> 해군전략은 해양전략의 하위개념으로 군사전략의 범주(範疇)에 속하며 해양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수단인 해군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략이다.

국가가 해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적으로부터 방해가 없어야 한다. 만약 국가의 해양력이 해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는다면 국가목표의 달성과 국가정책의 수행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군전략의 목표는 중요한 해역에서 자국의 해양사용이 보장되고 적의 해양사용이 거부되도록 해양이 통제되어야 한다. 즉, 해군전략의 목표는 해양통제권(海洋統制權)에 있다 하겠다.<sup>5)</sup>

해양통제권의 개념을 좀더 살펴보면, 해양통제권이란 “한 국가가 자국의 국익을 보호, 증진시키고 국가안전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해양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적국에 대하여 그러한 해양사용을 거부하는 상태”<sup>6)</sup>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시기에 제한된 해역에서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국(敵國)의 그러한 해양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적의 해군력을 효율적으로 제압, 통제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의 우세정도를 말하여 해양우세권(海洋優勢權)과 동일한 개념이다.

따라서 해양통제권은 해양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의미보다는 중요 해역에 대해 해양사용을 목적으로 해양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양

---

4) 김종기, 『해양전략개론』 (대전 : 해군대학, 1997), p. 40.

5) 상계서, pp. 40~41.

6)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해전교 0-1)』 (대전 : 해군본부, 1996), pp. 3~6.

통제 관련 상대국 또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해군력의 정도와 해양환경에 따라 그 사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해양통제권<sup>7)</sup>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으로 콜벳에 의하면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장기간의 전쟁지속능력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의 경제능력 파괴는 적의 타도를 위한 직접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해양국가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해양을 통한 자원의 유통(流通) 거부는 공격과 방어를 위한 잠재력을 약화시켜 전쟁지속능력의 붕괴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해양의 통제는 어느 의미에서 해전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고, 이는 해군력의 경제적 압력 이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된다.”<sup>8)</sup>고 하였다.

따라서 해전의 목적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목표를 제시해 보면 첫째, 적 군사력의 격멸에 해당하는 적 함대의 탐색 및 격파, 둘째, 영토의 점령에 해당하는 해양통항(海洋通航)에 대한 공격 및 보호, 셋째, 영토점령을 위한 지상군과의 합동작전의 지원 및 보호, 넷째, 적 의지의 파괴에 해당하는 적 함대 활동의 마비 및 적 해양통상 활동을 거부하는 봉쇄 등이 있다.<sup>9)</sup>

---

7) ① 제해권(Command of the sea)이란 마한에 의해 최초로 정립된 개념으로 해양에서 물자를 수송하는 능력을 보장하고 적의 이러한 능력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해양통제권(sea control) : 터너제독에 의해 구분되었으며, 장기간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고 야측의 해양사용을 독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해양우세(Sea Superiority) 야측의 지상군, 공군 및 해군부대가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공해의 해상, 수중, 그 상공 또는 그 영향해역에서 적 해군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작전할 수 있도록 공해를 지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해권과 해양통제는 오늘날 용어의 구별없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Alfred T. Mahan,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Principles of Military Operation on Land*, 이윤희·김득주 역, 『해군전략론』(서울 : 동원사, 1974), p. 1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통제권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8)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 of Maritime Strategy*,(London : Longman Green and Co., 1918), pp. 78~88. 김종민, 전게서, pp. 109~110에서 재인용.

9) 상게서, p. 110.

그러나 이러한 전면적인 해역의 통제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달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해양통제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전전략에서 요구되는 것은 적 저항력의 완전한 파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방해하는 적 함대세력의 파괴만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이며 그렇게 될 때만이 올바른 해양통제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 나. 해군전략의 수단

해군력이란 해양력의 군사적 구성요소로서 국가 해양력이 보호수단이며 전투수단이다. 그리고 해군력은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해양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즉, 해군력은 전시(戰時)에 해양통제권을 확보, 유지 및 행사하고 동시에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며, 적국에게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이러한 해군력은 함대 또는 해군부대로 구성되는데 함대란 함정, 항공기, 해병부대 및 함대 기지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해군부대는 통상 함대의 주요 예하조직으로 특정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기동부대 등으로 운용된다. 일반적으로 해군력은 기동성, 융통성, 접근성, 체류성, 은밀성, 생존성 및 상징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sup>11)</sup>

역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해군력은 군사적 역할, 치안유지 역할 및 외교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 중 군사적 역할로는 평시에 자국과 동맹국을 위하여 전략적 억제(戰略的 抑制)를 제공하고 전시에 대비하여 재래식 억제와 방어를 제공하였고, 전시에는 자국의 해양사용을 목적으로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고 자국과 동맹국에 필요한 해역의 제해권을 유지하여 왔다.<sup>12)</sup>

---

10) 김종기, 전계서, p. 34.

11) 상계서, p. 37.

12) K.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 (London : Croom Helm, 1997). p. 15.

해군력의 발전과정 측면에서 보면, 해군력은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통적 군사사상에 따라 다르게 유지되어 왔다. 즉, 해양국과 대륙국은 해군력의 전략적 가치에 대하여 인식을 달리해 왔다. 국가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양강국은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반면, 대륙강국은 해군력을 소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국가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필연적 조건에 따라 형성되었는데, 사상적인 측면에서 전자(前者)는 해양통제적 사상, 후자(後者)는 해양거부적 사상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해양통제사상은 해양강국의 군사사상으로서 해양을 지배하거나 통제하여 대륙의 질서를 자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게 유지하려는 국가전략의 필연성(必然性)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해양거부사상은 대륙강국의 군사사상으로서 지상군에 의하여 대륙을 지배하거나 통제하고 해군력으로는 해양강국의 개입을 거부해야 하는 전략적 요구에 의해 발생되었다.<sup>13)</sup>

또한, 해군력을 유형적으로 분류해 보면 먼저, 해양통제형 해군은 자국의 보호보다는 타국에 대한 해양통제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해양투사형 함정세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양통제형 해군은 해양통제와 해양투사의 양대(兩大) 전투수행능력을 구비하게 되며 부수적으로 해상시위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sup>14)</sup> 해양거부형 해군은 전략이 지상군 중심이기 때문에 대륙국에서 선호하는 유형이다. 대륙국은 일반적으로 지상군 중심의 대(大)병력주의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기하고 해군은 적 해군의 접근을 거부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거부형 해군은 해군력의 운용에서 방어와 기습에 치중하기 때문에 함대 대 함대의 결전방식보다는 지구전과 게릴라전 방식을 취하여 왔다. 재래식 잠수함은 전투함정에 대한 공격보다는 대륙에 접근

13) 강영오, 『한반도 해상전략론』 (서울 : 병학사, 1988), pp. 17~18.

14) 해양통제형 해군은 일반적으로 항모, 전함, 순양함, 구축함 등의 대형전투함을 주축으로 구성된 해군의 형태를 말한다. 상계서, pp. 36~40.

하는 선단(船團)의 공격에 활용하고 고속정과 전투함은 요새화기지를 중심으로 운용하였다. 그러나 전함의 평면전(平面戰) 시대에 비하여 잠수함, 유도탄 및 항공기의 출현은 해양거부형 해군이 일방적으로만 불리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황이 보다 복잡하게 되었고 제1·2차 세계대전과 같이 해양거부형 해군이 완패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 다. 해군전략의 방법

전시에 해양은 제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군 공세의 첫 목표는 아주 중요한 해역에 대하여 제해권을 확립해야 하는 데 있다.<sup>15)</sup> 그러므로 해양통제권의 확보 및 유지는 이를 방해하는 적의 해군력을 격파하거나 무력화함으로써 달성되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통제권을 확보·유지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함대결전, 현존함대, 함대봉쇄 및 통상파괴전 전략이 있으며, 비(非)결전주의 전략으로 요새함대전략이 있다.<sup>16)</sup>

##### (1) 함대결전(艦隊決戰)

결전이란 적의 함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위협이 되므로 가용한 세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파한다는 개념이다.<sup>17)</sup> 마한은 비록

15) Bernard Brodie, *A Guide to Naval Strategy*, (Westport : Greenwood Press, 1997.), p. 75. 김종기, 전게서, p. 46에서 재인용.

16) 전통적인 해양전략이란 “전시에 한정된 해군전략 또는 해전전략이다.” 김종민, 전게서, p. 143. 전통적으로 해양통제권을 확보·유지하는 방법으로는 함대결전, 현존함대, 함대봉쇄전략이 있으며, 행사하는 방법에는 통상파괴전, 군사력 투사가 있다. 전통적인 해양전략에 대해서 Geoffrey Till 교수는 ① 해양통제, ② 해양교통로의 보호 및 파괴, ③ 군사력의 투사로 제시하기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해양통제권의 전통적인 해양전략을 해양통제권의 확보·유지 수준에서만 다루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해양통제권의 행사는 확보·유지 이전에 필히 선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새함대전략은 현존함대전략과 유사한 전략으로 분류되고 있고, 통상파괴전 전략은 해양통제권의 확보·유지 차원으로도 분류할 수 있어 함께 포함하였다. 김종기, 전게서, pp. 48~53. 김종민, 전게서, p. 153. 전통적인 해양전략에 비교하여 현대 해양전략을 Julian Lider 교수는 ① 억제 및 위기관리 전략과 힘의 강압적 사용전략, ② 영토의 점령을 거부하고 원상상태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전략, ③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시 군사력의 사용에 관한 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게서, pp. 152~153.

17) 김종기, 전게서, pp. 48~47.

어느 정도 열세한 함대일지라도 세력의 집중된 힘을 이용하여 결전을 통한 승리만이 궁극적인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적극적인 함대 운용이야말로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조건으로 보았다. 일단 이러한 우세함대에 의하여 해양통제권이 확보되면 원활한 해상수송(海上輸送)을 이용하여 내선(內線)에서 유리한 작전이 가능하며 동시에 적에 대하여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18)</sup>

함대결전의 수단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많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전투 수단이 수상함정에 불과했고 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상의 무기체계도 사정거리가 극히 짧은 대포에 불과했기 때문에 해전의 결과 그 자체는 바로 해양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할 수 있었다. 또한, 전쟁을 위해 동원되는 함정도 기동력이 떨어지고 행동에 큰 제한을 받음으로써 결정적 장소에서 결정적 시기에 집결하지 못할 경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함정을 한 장소에 집결시켜 일방이 타도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함정의 기동성이 증대되었고 무기의 도달거리가 확대되어 백병전과 같이 일방이 타도될 때까지의 근접교전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으며, 특히 지상의 무기체계도 해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교전 결과가 바로 해양의 완전한 자유로운 사용을 의미하지 못하게 되었다.<sup>19)</sup> 따라서 현대의 함대결전은 과거와는 달리 단순히 적 함대의 격멸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

18) Geoffrey Till, *Modern Sea Power*, pp. 8~9, 상계서, pp. 46~47에서 재인용

19) 김종민, 전계서, p. 99.

## (2) 현존함대(現存艦隊)

현존함대<sup>20)</sup>는 상대적으로 열세한 함대가 결전을 회피하고 세력을 보존함으로써 적의 전투 또는 공격 의지를 발동(發動)할 수 없게 견제하는 개념이다. 즉, 적의 주력(主力)으로부터 분리된 소(小)부대를 각개 격파함으로써 누진적(累進的)으로 적의 세력을 약화시켜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 전략은 유용하게 사용될 때, 특정해역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본질적으로는 수세이나 전술적으로는 공세의 특징을 갖는다.<sup>21)</sup>

현존함대전략의 수단에서 보면, 현존함대는 비록 그 수단이 열세함대일지라도 대함·대공유도탄 등 파괴력이 강한 유도무기를 갖춘다면 자국에 대한 강대국의 우세함대에 의한 외교적 이용을 제한시킬 수 있다. 즉, 열세함대가 강대국의 우세함대에 대하여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케 함으로써 제한된 군사작전에 의한 피해 가능성과 그로 인한 확전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평시 정치목적 달성이나 국가이익 보호를 위한 강대국의 해군력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현존함대전략은 첫째, 해양에서 거부적 억제에 적용되어 질 수 있다. 현존함대는 비록 수적인 규모에서 열세하다 할지라도 적 함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방어능력만 구비한다면 적 우세함대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존함대 전략은 해양에서의 중요한 전략적 이익을 확보, 보호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즉, 해양이나 주요 기지 또는 협수로나 해협같은 군사

---

20) 현존함대 용어는 1690년 Arthur Earl of Torrington이란 칭호를 받은 영국의 허버트 제독이 프랑스의 투루빌 제독이 지휘하는 우세함대에 대항할 때 교전을 회피한 함대 행동에서 연유하였다. 그가 사용한 'fleet in being'이란 용어는 비활동적이고 소극적인 함대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세함대의 활동적인 공세적 위협의 가치를 의미한 것이다. Julian S. Corbett, op. cit., 해군본부 역, 『해양전략의 원칙』(서울: 해군본부, 1986), pp. 179~194.

21) Geoffrey Till, op. cit., pp. 6~8, 김종기, pp. 48~51에서 재인용

22) 예를 들면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피납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기동함대를 동원한 군사작전도 북괴의 해군작전능력에 의해 제한을 받았었다. 정삼만, "현존함대 전략의 현대적 운용과 발전",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1990), p. 59.

전략적인 요충지(要衝地)를 통해 자신의 억제력을 전개시키거나 은폐시킬 수가 있으며, 또한, 적의 그러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해상 시위(示威)에 의한 전략이다. 해군력 현시란 “전쟁에 이르지 않고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군력 사용의 한 형태이며 이러한 해군력 현시를 통해서 실시가 가능한 작전은 상륙돌격, 함포사격, 봉쇄, 정찰 등으로 위협할 수 있다. 넷째, 해양에서 제한전쟁 수행시 적용될 수 있다.<sup>23)</sup>

그러나 현존함대전략은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존함대 전략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격능력의 확보와 결전 의지가 갖추어져야 하고, 함대의 지나친 방어적 사용은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sup>24)</sup>

따라서 현존함대전략의 유용성과 한계성을 종합해 볼 때 현존함대전략은 열세한 함대수단을 보유하더라도 제한적인 해전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함대에게는 유용성을 더해 주는 전략으로 평가되며, 특히, 해양거부형 형태의 해군에게는 적절한 전략이라 하겠다.

### (3) 함대봉쇄(艦隊封鎖)

함대봉쇄는 결전을 회피하고 현존함대 전략을 채택하는 적의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항만내에 적을 봉쇄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의 수행은 적이 무력화된다면 봉쇄측 해군은 봉쇄선 배후(背後)에서 해양통제권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봉쇄에 참가하지 않은 세력은 해양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함대봉쇄는 봉쇄측 함대의 과도한 노력의 소모와 적의 연안방어세력에 의한 반격의 위협이 따른다.<sup>25)</sup>

23) 상계서, pp. 59~62.

24) 상계서, pp. 65~66.

25) 함대봉쇄는 해양통제권의 확보, 유지의 방법이며, 통상봉쇄는 해양통제권의 행사에 속한다. 전시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으며, 동일한 함대가 이 두 가지 작전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이병권, “해상봉쇄의 현대 전략적 의의와 발전”,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1991), p. 4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봉쇄의 범위를 함대봉쇄와 해상봉쇄의 범위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다.

이러한 함대봉쇄의 개념과 함께 해상봉쇄의 목적은 ① 실제 전쟁이나 잠재적 전쟁의 현장에 무장병력이나 군수품을 반입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며, ② 한 국가의 전반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그리하여 그 국가가 관여하는 지역에서 특정한 정책을 추구하거나 교전을 계속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③ 타국가에 난관과 불편을 줌으로써 전쟁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말이나 분쟁의 해소를 협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즉, 직접적인 목적은 적의 군사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목적은 교전능력을 완전히 격멸하는 데 있다.<sup>26)</sup>

봉쇄의 수단으로서는 기뢰,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 기뢰는 가장 대항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로,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로 인하여 방어 또는 공격목적으로 비밀리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서, 실제로 기뢰를 부설하지 않는 해역을 기뢰 부설해역으로 선언하여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기뢰를 부설함으로써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둘째, 잠수함은 은밀성과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탐지당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 수단이다.<sup>27)</sup> 셋째, 수상함은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전투 수단이었지만, 잠수함과 항공기의 발달로 오늘날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상함은 대잠작전과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 유도탄고속정의 출현은 약소국(弱小國)의 해군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수상함은 기뢰의 부설과 제거 및 봉쇄작전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넷째, 항공기는 해군의 기동성과 타격력 증강에 기여하였다. 항공기는 항속거리의 증가와 공중급유의 발달로 작전반경이 증가되고 무장이 개선되어 봉쇄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26) 상계서, p. 8.

27) 이러한 특징으로 잠수함은 ① 해상교통로 방어, ② 선박 및 수송선단의 호송, ③ 봉쇄 및 폐색적 통제작전, ④ 기뢰부설, ⑤ 특수작전 감시 및 정찰, ⑥ 전진방어 억제전략, ⑦ 대수상함전이 있다.

또한, 봉쇄전략을 목적 달성 위한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첫째, 해양을 많이 사용하는 행동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는 감소한다. 둘째, 봉쇄는 중립국들과의 충돌 위험성을 갖는다. 셋째, 현대의 전쟁이 총력전화된 상태에서 교전적 봉쇄는 단순한 전쟁행위를 떠나 전면전의 행위로 간주된다. 넷째, 성공적인 봉쇄를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봉쇄대상을 고립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대상이 도서일 경우 그 효과는 증가되지만, 대륙국가처럼 고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봉쇄의 효과는 제한된다. 다섯째, 봉쇄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므로 분쟁의 조심스런 해결을 위해서는 매우 적합하지만 예민한 사건에 있어 신속한 결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성을 갖는다. 여섯째, 해상봉쇄는 해양통제력을 가질 정도의 해군력의 우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콜벳의 견해에 의하면 장기적인 근접봉쇄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전쟁양상으로 극히 소모적이고 함정 척수에서 크게 우세하여야 한다. 또한, 기뢰에 의한 해상봉쇄는 봉쇄종료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소해(掃海)능력의 보유가 뒤따라야 한다.<sup>28)</sup>

결과적으로, 함대봉쇄는 적에게 심리적 부담과 적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유용성이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발달은 수단의 효용성을 증대시켜 더욱 그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실효적인 문제는 해상봉쇄의 사용을 제한하고 중립국과의 문제야기는 봉쇄의 실시를 신중하게 하여 사용에 한계성을 가지게 한다.

#### (4) 요새함대(要塞艦隊)

요새함대전략이란 러시아에서 발상된 요새 지상의 대륙적 전략사상이며 원천적으로 수세적(守勢的) 사상이다. 이 전략은 적의 해상공격으로부터 요새를 보호하기 위하여 함대가 해상결전을 피하고 요새의 비호 아래 있다가

28) 이병권, 전계서, pp. 77~78.

유리한 시기에 적 함대를 격파한다는 개념이다. 즉, 함대는 요새를 보호하는 이외에는 존재의 의의가 없으며, 연안방어의 기능을 전적으로 요새에 의존한다.<sup>29)</sup>

따라서 요새함대전략을 열세함대세력이 강한 적 함대에 대하여 결전을 회피하면서 위협적으로 적을 견제하려는 함대의 방어적인 운용개념으로서 적에 대한 일방적인 해양통제권의 독점을 거부하면서 자국의 해군력을 보존시켜 자국 영토에 대한 적의 침입을 저지하려는 소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격은 수세적 방어개념이라 하겠다.<sup>30)</sup>

요새함대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은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대전쟁에서도 피아(彼我) 전력과 전장환경에 따라 필요시 운용할 수 있는 비(非)결전주의전략이다.

#### (5) 통상파괴전(通商破壞戰)

통상파괴전은 해상교통로상의 적국 상선을 직접적으로 공격(격파, 나포, 약탈)하여 해양사용을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 적국의 전쟁지속능력을 저하시키는 전통적인 해군전략 중의 하나이다.<sup>31)</sup> 이러한 통상파괴전의 목적은 통상파괴를 행사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의 국민생활과 군사활동을 질식(窒息)시켜 적의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이는 상대방의 전쟁잠재력을 감소시키는 물론 전력을 분산시켜 결국 상대방의 전쟁의지를 굴복시키는 누진적인 전략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통상파괴전의 목적은 적국 경제의 교란으로 해외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대국에 대하여 그 교류를 차단 또는 약화시켜 교전력, 생존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통상파괴전의 최대 목표이다. 즉, 통상파괴전은 해상을 통하여 병력과 무기, 탄약, 식량 등의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선박을 공격함으로써 적 지상군의 후속

---

29) 상계서, pp. 118~119.

30) 정삼만, 전계서, pp. 45~46.

31) 우준식, "해상통상파괴전의 현대적 개념과 적용에 관한 고찰,"(석사학위 논문, 국방대학원, 1989), p. 7.

보급지원을 차단한다. 통상파괴전의 성공적인 수행은 적국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하므로, 적 주력의 상당수가 이에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함으로써 해전에서 고전을 겪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해상병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한다. 또한, 통상파괴전은 상대방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아군의 용기를 불어 넣는 것으로서 상선에 의한 후속보급지원 등의 차단(遮斷)은 적국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데 효과가 크다 하겠다.<sup>32)</sup>

예컨대, 적의 통상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신의 통상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원거리에서 제한전쟁을 수행하는 해군에게는 필수조건이 될 수 있다. 또한, 통상공격은 전투를 회피하는 적을 전투에 끌어들이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강자의 해군을 패배시키고자 희망하고 있던 약자의 해군을 위해 충분한 군사력의 범위를 창출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통상파괴전의 수단으로서는 잠수함, 항공기, 기뢰, 수상함 등이 있으며, 이 중 잠수함에 의한 통상파괴전은 양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통해서 보더라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또한 무기체계의 발달은 통상파괴전에서 항공기의 유용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항공기는 통상파괴전에 있어서 잠수함 다음으로 유용한 수단이 되었으며 특히, 잠수함의 위협에 대비한 대잠 항공기는 통상 보호수단으로서도 그 역할이 증대되었다.<sup>34)</sup>

32) 통상파괴전의 목적은 탑재재화의 탈취, 적국경제의 교란, 후속보급의 차단, 적 해상병력의 견제, 정보전, 심리전을 수행하나 강자의 해군을 패배시키고자 하는 약자의 해군을 위해 충분한 군사력의 변화를 창출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J. S. Corbett, 해군본부 역, 전게서, p. 242. 우준식, 전게서, pp. 20~22에서 재인용.

33)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잠수함은 통상파괴전 수행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에 의해 연합국 상선의 54.9%가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되었으며, 태평양 전역에서는 2,143척의 일본 선박 중 62.1%가 미국의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되었다. S.G. Gorshkov, 해군본부 역, 『전시 및 평시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서울: 해군본부, 1976), p. 123.

34) Geoffery Till, op. cit., pp. 159~162. 우준식, 전게서, pp. 23~27 재인용.

이러한 통상파괴전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통상파괴전은 현대전에서 국제법적 제한요인으로 인해 행동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대전쟁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총력전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대전에서도 매우 유용성있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해양통제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해군전략의 방법으로 함대결전, 현존함대, 함대봉쇄, 요새함대, 통상파괴전 전략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떠한 전략이 가장 효용성있는 방법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전통적 해군전략은 국제법적 요인, 기술적 요인, 그리고 전장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수단 즉, 해군력의 양적인 것과 관계없이 해양통제권과 전쟁이 미치는 영향 내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을 사용하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전통적 해군전략이론의 사례 분석

전통적 해군전략이론의 사례 분석에서는 한국전쟁, 제4차 중동전쟁, 포클랜드전쟁, 러일전쟁을 사례로 전략의 구성을 이루는 요소들 즉, 목적, 방법, 수단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여 보겠다.

#### 가. 한국전쟁(韓國戰爭)

한국전쟁은 지상군 위주의 전쟁이었으며, 해양통제권 확보를 위한 해상결전은 거의 없었다. 이는 북괴가 해양통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sup>35)</sup> 전쟁기간중 해상에서의 위협은 거의 없었으며, 단지, 원산만에 설치되었던 기뢰가 상륙작전에 영향을 주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유엔군 해군은 잠수함, 항공기, 그리고 수상함의 위협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였다.<sup>36)</sup>

35) 허준, "한국전쟁시 해군력 운용과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1989), p. 44.

36) 한국전쟁 당시 북괴의 해군력은 병력 16,200여 명과 해군함정 30여 척과 보조선박 80여 척이 있었으나 이 중에서 소련으로부터 원조 받은 어뢰정 PT 4척이 북괴 해군의 주력이었다. 해군대학, 『한국해전사』 (대전 : 해군대학, 1995), p. 602.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해군전략을 전통적인 이론 측면에서 본다면, 유엔군의 해군전략은 봉쇄전략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엔군은 전쟁의 정치적 목적인 원상회복(原狀回復)을 위하여 해양을 통한 적의 전쟁의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양의 이용과 해양의 통제라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해양의 통제를 위한 적 함대의 격파와 같은 방법을 선택할 필요도 없었고 결정적인 함대간의 전투도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근접지원 및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군사력의 투사 및 인원과 물품의 수송을 위한 해상교통로의 사용이라는 해양의 이용에 관한 해전을 수행하였다.<sup>37)</sup>

해상봉쇄 측면에서 한국전쟁을 분석해보면, 유엔 해군은 북괴의 5개 보급선 중 3개 보급선에 대하여 봉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첫째는 동해를 연한 해상 선박운항의 봉쇄이고, 둘째는 서해안에서 천수 연안 선박운항의 봉쇄, 셋째는 중국과 만주 그리고 북괴의 항구도시를 잇는 북괴의 해상 선박항로의 봉쇄이다. 이로 인해 북괴는 군사 이동과 보급품의 수송 및 어로(漁撈)를 위한 바다의 사용이 거부되었다.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해상봉쇄를 실시하였다.<sup>38)</sup>

이는 해양통제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함대봉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해양통제권을 행사하는 통상봉쇄(通商封鎖)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유엔군은 부산과 미국 및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를 유지하여 인원 및 군수품을 대량 수송하였다. 그럼으로써 낙동강 방어선을 고수하였고 반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

37) 김종민, 전계서, pp. 156~157. 그러나 해상을 이용한 북괴의 침투는 금진, 옥계 방면에 1,000톤급의 무장수송선과 PT 4척의 엄호하에 발동선 30여 척이, 삼척지역에 경비정 2척과 발동선 20여 척이 그리고 죽변·임원간 다수의 선박을 이용 총 3,000여 명의 병력을 상륙시켰었다. 또한 부산근해에서는 1,000톤급의 무장수송선을 이용 상륙을 기도하였다. 상계서, p. 603.

38) 허준, 전계서, p. 49.

또한, 한국전쟁시 유엔군의 해상봉쇄 수단은 미 7함대의 항모 1척, 순양함 2척, 3개의 구축함 분대, 2개 초계정 대대와 잠수함이 주축이었다. 그러나 북괴는 해군력이 거의 없었으므로 어떠한 해상 무기체계도 실효성있는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해군전략이론 수준에서의 한국전쟁을 평가해본다면 유엔군은 한반도 전역에서의 봉쇄에 성공함으로써 해양통제권을 유지하고 인천상륙작전 등 군사력을 투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북괴는 연안에서의 고립과 유엔군의 해상교통로를 차단(遮斷)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 나. 제4차 중동전쟁(第4次 中東戰爭)

1973년 10월에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을 해군전 측면에서 볼 때 사상 최초로 유도탄정간의 마사일 해전(海戰)이 전개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전쟁에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해 해상교통로 파괴와 함대봉쇄를 기도하였으며, 이스라엘 해군은 적극적인 함대결전과 군사력투사로 라타키아 해전에서 시리아 해군을, 이어서 다미에타-발틴 해역에서 이집트 해군을 미사일 전투에 의한 결전으로 격퇴시켰다.

이러한 중동전쟁에서의 해전을 전통적인 해군전략의 이론 측면에서 보면, 이집트는 통상파괴전과 함대봉쇄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은 함대결전으로 대응한 전쟁이었다.<sup>39)</sup>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랍측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한 전력을 가지고도 우수한 전술과 미사일 무기체계로 이집트 해군에 대응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며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선단호송과 유사한 현존함대 전략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집트 해군은 비록 그 기도가 사전에 분쇄(粉碎)되었지만 해상교통로 파괴와 상륙작전을 기도하였다.

이와 같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해군전(海軍戰)의 결과는 전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 했지만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술의 진보에 따라 미사일 전투에 의한 결전과 전통적 해군전략과 유사한 형태의 현존함대 전략, 함대봉쇄전략 그리고 해상교통로 파괴전략 등이 수행되었거나 시도되었다.

---

39) 김종기, 『해양전략개론』, 전계서, p. 162.

중동전쟁에서는 미사일이 해군전에서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였고, 현대전에서도 현존함대, 함대결전, 통상파괴전 등 전통적인 해군전략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 준 사례라 할 수 있다.<sup>40)</sup>

#### 다. 포클랜드 전쟁

포클랜드 해전은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로 발발한 전쟁이었다. 쌍방의 전쟁목적은 포클랜드와 남조지아섬을 점령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영국은 아르헨티나가 무력으로 점령한 포클랜드의 영유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지리적인 환경으로 포클랜드는 영국에서 약 7,000마일, 아르헨티나에서 약 40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장거리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면서 해양통제권을 확보해야 하는 매우 큰 노력이 요구되었다.

전쟁 수행과정을 보면 영국은 4척의 핵잠수함이 전쟁해역에 도착하자 포클랜드 주변 200마일에 대하여 전쟁수역을 선포하고 잠수함의 은밀성과 기동성 등을 이용 해상봉쇄를 단행하였다. 영국은 포클랜드의 아르헨티나 군을 본토로부터 고립시키며 아르헨티나의 수상함정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특히, 핵(核)잠수함으로 아르헨티나의 순양함 벨그라노호를 침몰시킴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수상함이 해상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여 실질적인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였다.<sup>41)</sup> 결과적으로 영국은 포클랜드에 대해 완벽한 수중과 수상에 대한 봉쇄를 가능케 하여 그들의 전략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항공작전에서는 아르헨티나 공군기의 활약으로 영국의 구축함 세필드함과 코벤트리함 등 많은 함정의 손실이 있었으며, 영국군의 포클랜드 상륙작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었다. 이처럼 포클랜드 해전은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은

---

40) 상계서, p. 163.

41) 이병권, 전계서, pp. 63~64.

상태에서는 적의 공중침투를 허용하게 되어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해전이였다.<sup>42)</sup>

이러한 포클랜드 전쟁을 전통적인 해양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봉쇄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수단적인 측면에서는 잠수함과 항모항공기, 유도탄 등이 해상봉쇄의 수단으로 실효성이 검증된 전쟁이라 하겠다.

#### 라. 러일전쟁(露日戰爭)

러일전쟁은 만주에 뿌리를 내리고 한반도로 남하하려는 야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러시아와 대륙으로 팽창하려는 일본이 충돌한 대륙국가 대 해양국가의 전쟁이었다.<sup>43)</sup> 이 전쟁에서 일본이 취한 해군전략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개전과 동시에 육군수송을 가능케 하고 그 선제 개전을 지원한다. 둘째, 육군작전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해군은 반드시 결정적 승리로 전쟁종결의 계기를 만든다. 셋째, 적 섬멸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적이 잔존하는 한 우리도 건재한다는 것 등이었다.<sup>44)</sup>

반면, 러시아의 작전방침은 “일본군이 만주에 진격을 개시하지 않는 한 공세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침공한다면 일본의 육·해군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전쟁을 하되 그 시기는 충분한 병력을 확보시까지 결전을 피한다.”는 전략이었으며, 해군은 극동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여 일본군의 한반도 및 만주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함대의 주력 함정은 여순 기지에 배치하고 일부 함정은 블라디보스톡에 배치하여 일본의 후방 교통로를 차단하고 일본 연안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兩國)간의 방침하에 치러진 전쟁의 수행과정을 보면, 일본해군은 선제공격으로 여순 외항에 정박하고 있는 러시아 함정에게 어뢰공격을 감행

42) 이상갑, 전계서, p. 49.

43) 정하명 외, 『세계전쟁사』 (서울 : 일신사, 1993), p. 174.

44) 이지두, “러일해전연구”, 『해양전략』 12호 (진해 : 해군대학, 1982), p. 12.

손상을 주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 해군은 여순항의 비호(庇護) 아래 요새함대전략을 취했으며 일본 해군은 일시적인 해양통제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 해군은 요새함대전략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 함대에 대하여 함포공격과 폐색작전, 항만봉쇄작전 등을 실시하였으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함대는 대한해협을 위협하고 일본의 연합함대를 견제하면서 통상파괴전을 실시하였다.<sup>45)</sup> 그러나 일본은 육군과의 합동작전을 실시하여 여순항을 함락함으로써 항구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완전히 섬멸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대항해를 실시하여 쓰시마 해협에 도달하자 일본의 연합함대는 대담한 적 전방(敵 前方) 대회두(大回頭)의 기동전술과 우수한 사격능력을 바탕으로 함대결전을 추구하여 압승함으로써 러일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간 해전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해군전략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 해군은 초기 일본해군의 기습에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지원하기 이전까지 현존함대전략과 요새함대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상당기간 효과를 보았으나 요새가 일본의 지상군에 의해 함락됨으로써 러시아가 목표했던 해양통제권 획득은 물론 거부도 하지 못하고 패배를 자초했다. 한편, 일본 해군은 함대결전과 함대봉쇄전략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멸시킴으로써 러일전쟁 전체의 승리를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다.

요새함대전략은 해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함대를 보호할 수는 있으나 지상에서의 방어가 실패할 경우에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45) 블라디보스톡 함대는 개전 후 7회에 걸쳐 출동하여 일본의 수송선 4척, 상선 3척, 영국 상선 1척을 격침시키는 등 통상파괴전을 실시하였다. 상계서, p. 21.

### Ⅲ. 북괴의 군사전략과 해군전략

#### 1. 북괴의 군사전략

남북분단 이후 한반도에는 수많은 정세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관계없이 북괴의 대남 기본전략만은 항상 변함없이 일관성을 유지하여 왔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전체의 적화통일’에 있었다. 그리고 이 목표는 북괴가 존재하는 한 변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sup>1)</sup> 따라서 북괴의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을 포함한 북괴의 군사는 한반도의 적화통일(赤化統一)이라는 목표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 가. 군사전략 형성배경

북괴의 군사전략 개념 정립은 절대권자였던 김일성의 군사이론 형성배경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김일성의 군사이론 형성 배경은 ① 김일성의 항일 유격전(遊擊戰)의 경험, ② 한국전쟁의 체험, ③ 쿠바사태('62. 10), 제3·4차 중동전쟁('67. 6, '73. 10), 월남전쟁('62~'75) 등 국지전의 교훈, ④ 김일성의 소련군 참전경험의 교훈에 영향을 받았으며, 북괴는 이를 한반도 실정에 맞게 군사력 건설 및 용병(傭兵)개념을 적용하여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다.<sup>2)</sup>

북괴의 군사전략 형성 배경의 세부적 내용은 첫째, 김일성의 항일유격전 경험으로, 침투 및 유격전, 산악 및 야간전투 중시 전략과 적 배후(背後)에 대한 제2전선을 형성, 소(小)부대 활동 및 대(大)부대 작전 행동의 결합과 인민대중에 의거한다는 원칙을 낳게 하였다.<sup>3)</sup> 김일성은 1931년 정식으로 중국공산당의 당원이 되면서부터 주로 동(東)만주 지역 일대에서 산발적인 유격전에 참가하였는데, 이때, 김일성이 몸에 익혔던 것은 모택동(毛澤東)에 대한 광신적인 존경과

1) 배명오, 『한반도 북방 군사론』 (서울 : 거목, 1986), p. 18.

2) 서원식, 『북한전략사상 신론』 (서울 : 한원, 1991), pp. 67~83.

3) 배명오, 전계서, p. 61.

인민전쟁론의 신봉자로서 비적 행위와 다름없는 폭력전법이었다. 특히, 1933년부터 37년간에 치렀던 소왕청(小王淸), 노흑산(老黑山) 및 진천보(晉天堡) 전투 등은 매복 기습형태로서 사실상 전술적 범위에도 취급되지 않는 소규모 게릴라전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들은 이른바 혁명전쟁의 전형으로 미화하여 오늘날 인민군대의 교리로 삼고 있으며, 군사전략에서 비정규전의 중시 경향에 대한 근원적 배경이 되고 있다.<sup>4)</sup>

두번째는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1950년 12월 소집된 “별오리 회의”에서 김일성은 패전의 원인을 분석하고 군사력을 재건하였다. 이는 오늘날 북괴의 군사전략을 형성하는 절대적인 영향 요인으로서 6·25전쟁 초기에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진격하였다가 패퇴하고 말았던 군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침전쟁 수행에서만은 절대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상들이 군사전략의 수립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1950년 12월 23일 자강도 만포군 별오리에서 개최되었던 당중앙위원회 제2기 3차 확대 전원회의 석상에서 자아비판 논조로 행한 김일성의 연설 내용은 북괴의 군사전략 방향과 지침이 되어져 왔다.

세번째는 쿠바사태, 월남전쟁, 제3·4차 중동전쟁 등 당시의 국지전의 교훈이다. 이들 전쟁은 소련의 대미(對美) 굴복은 김일성을 자극시켰으며, 이는 북괴의 강력한 지원세력이고 상호 군사원조 조약에 의해 유사시 즉각적인 군사지원을 해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던 소련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소련에 대한 불신감은 소련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하에서도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단독 공격능력을 갖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월남전에서는 게릴라전의 효과를 알게 되었으며 한국내에서도 유격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교훈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거 정규전과

---

4) 상계서, p. 63.

유격전의 배합(配合)이라는 배합전전략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제3·4차 중동전에서 북괴는 기습 전격전의 효과를 분석하여 핵전쟁이 아닌 제한전쟁 및 국지전에서는 기습 전격전이 중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갑력과 항공력의 보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sup>5)</sup>

네번째는 소련의 군사사상 영향이다. 1941년 김일성은 소련 공산당원이 되었으며, 정규군의 일원으로서 소련의 교리를 접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 시기에 당시 소련 육군장관이던 투하체프스키 원수가 저술한 '소련군 야전교령'을 연구할 수 있었고, 독(獨)·소(蘇)전에서 소련이 승리한 전략적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였다. 김일성은 독·소전에서 국부(局部) 제공권 장악하의 기갑 및 기계화부대에 의한 과감한 전선 돌파와 전과확대작전을 알게 됨으로써 오늘날 북괴 군사전략의 정규전 교리인 돌파, 양익(兩翼) 포위 및 연속적인 타격에 의한 전과확대 실시의 기초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다.<sup>6)</sup>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김일성의 군사이론의 형성배경은 만주에서 경험한 중국식 유격전, 소련군 참전경험, 6·25전쟁의 교훈, 60년대 이후 국지전 교훈으로부터 한반도 실정에 맞는 군사력 건설 및 용병개념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군사전략으로 정착되었다.

#### 나. 군사전략 개념

북괴의 군사전략 개념은 일반적으로 전략개념과 전략구상(戰略構想)으로 형성되어져 있다.<sup>7)</sup> 북괴의 군사(軍事)에 있어서 전략구상은 중국적으로

---

5) 서원식, 전게서, pp. 77~80. 북괴는 월남전에서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전술에 관한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월남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던 1969년 1월 북한은 인민당 제4기 전원회의를 열어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을 무시하고 AN-2기 도입 지연 등 비정규전 전력건설 부실의 책임을 물어 당시 민족보위상 김창봉 등을 숙청하고 배합전에 대한 군비강화를 지시하였다.

6) 상게서, p. 71. 이는 통합군식 군사조직과 기동 위주의 전투편성 및 화력중시의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7) 배명오, 전게서, p. 70.

달성하여야 할 전략적 목표이며, 전략개념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행동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북괴의 군사전략을 보면, ① 선제기습공격, ② 속도전, ③ 정규, 비정규전의 배합전으로 분류되는 3대 군사행동의 연계작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8)</sup> 이 중 선제기습전략은 전략전 요충지를 점령 후 유리한 조건하에서 정치협상의 여건을 조성하고, 한수(漢水) 이북의 아 야전군 방어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이는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전략적 선제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 특공부대에 의한 전술적 선제기습공격 등 다양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일성은 정규전에 있어서 무장을 경량화함으로써 군사력에 속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습공격은 원자탄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며 선제기습공격이야말로 전승을 쟁취하기 위한 최상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sup>9)</sup>

또한, 속도전은 북괴가 전쟁물자 비축문제와 한국의 반격에 대비한 개념이다. 이는 현대전의 속전 경향에 따라 초전의 격심한 교전을 예상할 때 북괴가 비축한 전쟁물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군의 반격과 역습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창안된 전략개념이다. 그러나 단기결전을 감행하려면 우선 전략 목표를 중심얕게 잡거나 남한 전역의 점령을 위한 전면전 시도의 경우는 적극적인 수직강하부대의 투입과 상륙작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sup>10)</sup>

---

8) 조선로동당, “로동신문” 1970. 11. 3일자. 1971년 인민군 창건 23주년 기념보고 대회에서 한익수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대량기습 선제공격, 속전속결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전술을 언급한 바 있다. 국토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 국토통일원, 1983), p. 23에서 재인용. 이러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1960년대에는 소련 의존적인 전략으로 기습전략과 속전속결을 바탕으로 하였고, 1970년대에는 독자전략으로 김일성의 주체전략을 반영 비정규전 전략요소를 중요시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민병천, 『한국방위론』 (서울 : 고려원, 1983), pp. 193~200.

9) 김호찬, 『북한정세』, 해군대학 강의교재, (대전 : 해군대학, 1998), p. 84.

10) 북한의 속도전개념은 루덴돌프의 전격전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근원적으로 클라우제비츠의 개념과도 일치된다. 김일성은 6·25 남침시 미국이 대병력을 증파하기 이전에 한국군을 섬멸 소탕하여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전략방침을 수립하였었다. 상계서, p. 85.

마지막으로, 배합전의 개념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개념을 정립하여 북괴의 실정에 맞게 주체적으로 개념화한 전략이다. 배합전략은 1970년에 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을 잘 이용하여 산악전과 야전작전,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올바르게 결합한다면 최신병기로 잘 무장된 적(敵)이라 하더라도 능히 격퇴시킬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배합전 개념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합전략은 불의의 공격에 대처한 즉각적인 반격과 연속적인 타격전, 기본전선과 제2전선과의 협동에 의한 대 포위전(大 包圍戰) 적극적인 방어전략과 습격전, 산악전과 야간전, 악조건에서의 각 군종과 병종간의 협동작전, 포화력의 집중적인 이용과 유동포 활동, 저격수 운동 등 여러 가지 작전과 운동에 의해 배합으로 구체화하고 있다.<sup>11)</sup>

#### 다. 전략구상(군사전략의 목표)

북괴는 남침전쟁을 감행할 목표로서 네 가지의 전략구상을 가지고 있다.<sup>12)</sup> 북괴의 전략구상은 북괴군이 종국적으로 달성해야 할 전략적 목표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의 달성은 곧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 할 수 있다. 전략구상은 첫째, 적 주력에 대한 유생역량의 격멸이다. 즉, 적의 영토를 탈취하여 지역을 확장하는 것만이 전쟁의 주안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적의 현존전력을 전격적으로 기습하여 재기 불능의 상태로 이를 섬멸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보장할 작전으로는 주공(主攻)방향에 지향되는 상대적 우세전력의 과감한 돌파작전과 병행하여 양익(兩翼) 및 수직포위가 강조되고 신속한 연결작전에 따른 무자비한 전과확대와 패주하는 적의 꼬리를 물고 과감한 추격행동의 연속이라고 믿고 있다.<sup>13)</sup>

11) 권영효, “북한 배합전 위협과 대응전략”, 『국방연구』 제26권 제2호 (서울 : 국대원, 1990), p. 243. 정규·비정규전의 배합에 있어 정규전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군의 야전교련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의 지형적 특수성을 가미한 전격전의 변형으로, 이의 성공적인 요건은 국부 제공권의 확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12) 배명오, 전계서, p. 70.

13) 유생역량 격멸의 방법은 주공방향에서의 과감한 돌파, 양익 및 수직포위 강조, 과감한 전과확대작전이다. 서원식, 전계서, p. 100.

둘째, 남조선 전역의 동시 전장화이다. 북괴는 전선의 정규 주력부대의 지상 공격에 선행하여 특수부대 요원을 남한 전역에 침투 및 전개시켜 전역의 동시 전장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전부대의 작전 행동은 준비된 해안침투부대를 남한의 동·서·남해안을 가리지 않고 침투시키거나 대규모 상륙부대로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해·공군을 동원한 기습적인 공습과 연안포격 및 해상수송로를 봉쇄하여 한국의 전략 요충지와 산업시설 등을 파괴하고 우방으로부터 수송되는 전략물자의 양륙을 방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sup>14)</sup>

셋째, 남조선 수도권의 조기석권이다. 이는 한국의 수도권은 국력의 반 이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괴는 적어도 미군의 증원 또는 한국군의 반격여건이 조성되기 이전에 수도권을 석권하여 한강 이북이라도 선제 점령한 다음 남·북한 간의 인구와 영토 그리고 자원의 역(逆)균형을 초래케 한 상황하에서 휴전을 제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5)</sup>

넷째, 남조선 전역의 조기점령이다. 북괴는 전략개념에서 단기결전을 설정하여 속도전 교리개발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동성있는 장비와 전투편성을 준비하여 왔다. 따라서 장기전시 우려되는 한국군의 역공세와 미 본토에서 오는 주력의 개입 전에 남한 전역을 조기 점령한다는 것이다.

## 2. 북괴의 군사력과 해군력 구조

### 가. 군사력 구조와 특성

북괴는 군사전략 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적 요소로서 해군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군사전략의 수단으로 건설하여 왔다. 북괴군의 목표는 개전 초기

14) "남한 전역의 동시 전장화" 방법은 ①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② 해·공군의 후방 타격으로 요약되며 이는 현대전이 전면전과 입체전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정립되었다. 상게서, p. 107.

15) 남한 수도권의 조기석권을 위해서 북괴는 단기 전격전 개념의 교리개발에 주력하고 아군의 반격기회 박탈에 주력하고 있다. 상게서, p. 110.

한국군 주력부대의 포위섬멸, 수도 서울의 조기장악, 남한의 동시전장화 및 조기석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북괴의 군사력 건설방향은 이와 같은 군사적 목표의 달성을 용이하게 할 실천 수단으로서 결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북괴의 군사력은 전후재건기(1953~1961), 자립 및 방어강조기(1962~1969), 공격능력 강조기(1970~1979), 공세적 군사태세 발전기(1980~계속)의 4단계로 발전시켜 왔다.<sup>17)</sup>

전후재건기에 있어 북괴의 군사정책은 기존의 중·소 의존의 군사정책에서 변화를 가져왔는데,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약 100만의 중국군이 1954년 10월에 7개 사단, 1955년 10월에 6개 사단, 1958년 4월에 6개 사단이, 8월에 2차로, 10월에 3차로 철수함에 따라 중·소 의존정책은 군비재건정책으로 바뀌어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은 1954년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1961년에는 5.16 군사혁명으로 한국의 안보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군비재건정책은 실질적인 중·소 의존정책으로 바뀌어 1961년 7월 6일에 소련과, 7월 11일에는 중국과 각각 우호협력 상호 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실은 중·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의존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존정책하에서 군비증강(軍備增強)을 추구하였다.<sup>18)</sup>

자립 및 방어강조기에 북괴는 국가 전체예산 중 군사비 비율을 5% 미만에서 3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시켜 무기생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장비의 현대화와 신무기 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북괴는 재래식 무기의 양산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장비는 지상군과 해군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독자적인

---

16) 이석호, "군사사상과 전략", 『북한개론』, 최명 편, (서울 : 을유문화사, 1991), pp. 637~638.

17) 국제문제 연구소, 『방위연감 1995~1996』, (서울 : 국제문제연구소, 1995), pp. 168~169.

18) 서원식, 전게서, pp. 93~95.

재래식 무기의 생산능력과 무기의 현대화 추진에 힘입은 북괴는 대남 군사적 우위 유지라는 자신감으로 무력적인 대남 도발을 증가하기도 하였다.

북괴의 군사정책기조는 자위정책이었는데, 북괴가 내세운 자위정책이란 구체적으로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으로 표명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괴가 중·소 대립의 와중에서 친(親) 중국적인 외교정책을 취하게 됨으로써 소련이 대북한 군사경제원조를 중지 및 삭감하였으며, 반면에, 한국에서는 5.16 군사혁명 이후 반공체제가 더욱 확립되어 간접침략에 의한 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북괴는 전면 무력남침의 방침을 굳히고 수적 우세를 목표로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였다.<sup>19)</sup>

공격능력 강조기인 70년대에 들어와서 북괴는 국방자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군사력 건설은 60년대에 비하여 보다 공세 위주의 전력증강 방향으로 양적 팽창을 기도하였다. 그 근거는 1969년 1월 인민군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내용이 북괴군의 공격적 전략을 시사하고 있다.<sup>20)</sup> 이후 북괴는 각종 중화기 대량 생산은 물론 소련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량형 T-62를 자체 생산하여 기갑부대의 주력전차로 배치하였다. 이 시기에 해군함정의 경우 고속공격정과 소형 전투함의 독자적 생산이 가능한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일부 잠수함 부품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70년대의 특수부대 병력, 포병 및 기갑전력은 '60년대의 추세처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해군의 잠수함, 상륙정, 어뢰정도 두 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공군은 특수부대의 수송용 AN-2기 200여 기를 비롯하여 MIG-21, SU-7을 새로 도입하여 특수부대의 후방침투능력과 공군의 전력 향상을 도모하였다.<sup>21)</sup>

19) 이기건, 『북한은 어디로 가나』 (서울 : 내외문제연구소, 1980), pp. 21~22.

20)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pp. 1,468~1,470.

21) 고성윤, "북한의 군사정책 노선과 군사력 건설방향", 『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 국방연구원, 1996), p. 68.

공세적 군사태도 발전기인 80년대의 북괴 군사력 건설은 정밀무기 개발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지상군 무기의 경우 거의 전장비를 자체적으로 양산하여 조달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방위산업은 MIG-21기를 조립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북괴의 대남 군사전략은 더욱 더 공세적으로 나가게 하는 촉진요인이 되었다.

북괴는 90년대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특수부대와 기갑부대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전투부대의 기동성과 전투력을 강화하고자 장비의 자주화(自主化)와 기계화를 추진하여 왔다. 특히 수년째 지속되는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그리고 장사정 포 및 MIG-21/29기를 자체 생산하는 등 재래식 무기체계 분야에서 공격적 성향의 군비증강(軍備增強)을 계속하고 있다.<sup>22)</sup> 그리고 최근의 군사력 건설은 화학무기, 장사정 미사일의 제조 및 핵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표 III-1〉 90년대 북괴의 군사력 건설 현황

구 분	1991	1993	1997	비 고
GNP	239	208	200	
경제성장률	-5.2	-4.3	-3.6	
군사비(억불)	54.5	53	54	
총병력	1,132,000	1,128,000	1,035,000	
탱 크	3,600	3,800	3,000	
야 포	9,500	9,800	10,600	
잠수함	24	26	26	
전투함	436	434	425	
전술기	850	850	800	
공격용 헬기	50	50	50	

〈출처 : IISS, MILITARY BALANCE, 1992~1993, 1994~1995, 1996~1997, 1998~1999.〉

22) 상계서, p. 67.

이러한 북괴의 군사력 건설이 지향하는 목표는 그들의 대남 군사전략인 선제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전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는 데 있다. 기동화된 전투부대와 장사정 무기에 의한 기습전략 및 전선 후방에서의 대규모 유격전은 개전 초기에 남한의 대공황(大恐慌)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며, 기동화부대와 공군항공기 부대의 고속강습은 단시간내 전장 중심권이 진입, 한·미 연합군의 추가적인 증원을 차단하고 전쟁을 종결하는 속전속결전략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나. 해군력의 증강과정과 특성

북괴의 군사력은 전후재건기, 자립 및 방어강조기, 공격능력 강조기, 공세적 군사태세 발전기의 4단계로 발전시켜 왔는데, 이러한 군사력 건설과정과 해군력의 증강과정을 비교해 보면 해군력도 이와 같은 단계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먼저, 전후재건기에서 북괴 해군의 해상세력은 소련해군이 제공한 소형함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소형함 위주의 전력구조를 토대로 한 연안방어 특히, 상륙작전에 대비한 해안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24)</sup>

〈표 Ⅲ-2〉 전후재건기의 북괴 해군력

구분 \ 연도	1953	1956	1962	비 고
병 력	14,500명	7,400명	8,800명	56년까지 감소 후 증강 연평균 +200명
어뢰정			21척	노후함정 교체
구잠정			17척	+17척
소해정			30척	+30척
보조정	24척	24척		
계	24척	24척	68척	+44척

〈출처 : JANES FIGHTING SHIP, 1961~1962〉

23) 국제문제연구소, 전거서, pp. 168~169. 북괴 해군의 성장과정을 창군기, 한국전쟁기, 재건기, 전력증강기, 연안작전기, 원해작전기로 나누는 경우도 있으나 그 출처가 모호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북괴의 군사정책 변화시기에 맞추어 구분하였다.

24) 조부근, "북괴해군의 성장과정과 전략사상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해군대학논문(진해 : 해군대학, 1984), p. 45.

1950년 12월 21일 자강도 만포 '별오리 회의'에서 김일성은 군사전략상의 반성을 통하여 "우수한 공군과 해군을 가진 적과 싸우는 특수한 조건에서 전투가 진행될 줄 몰랐다."고 하였다.<sup>25)</sup> 이 반성을 토대로 하여 북괴군은 해·공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는데, 특히 인천상륙작전의 경험으로 해안방어에 치중하여 해안감시 레이더와 약 30개소의 육안감시소를 설치하고 해안포대도 설치하였으며, 연안경비정과 어뢰정을 중점적으로 증강하였다.

자립 및 방어강조기에 있어서 해군전력은 어뢰정과 각종 경비정으로 총 180여 척에 17,000톤으로 증강되었다. 1척의 평균 톤수는 100톤 미만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 시기에 북괴는 소련제 W급 잠수함을 보유하기 시작하였다.<sup>26)</sup> 이는 북괴 해군이 연안방어의 범위를 벗어나 한국 해군에 대한 공격능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또한, 북괴는 동해에 12개의 각종 전대와 서해에 8개의 각종 전대를 두었으며, 동·서해안에 1,000여 개소의 해안포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분산배치는 대부분의 함정이 소형으로서 내해성이 약하고 행동반경이 짧기 때문에 육상기지 중심의 작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반면에 분산배치는 유사시 전해안에 걸쳐 즉각적인 함정의 동원이 용이하다는 이점도 가졌다.<sup>27)</sup>

이 기간 동안 건설된 북괴의 해군력은 그 주력을 동해에 배치하였다. 그 원인은 상륙해안의 조건과 기뢰전에 영향이 큰 해류 및 간만의 차가 서해에 비하여 동해가 유리하며, 동해는 해역조건으로 보아 일본 어선 및 일본 해상자위대의 영향과 한국 해군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경계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전력의 배치로 동해의 마양도에 배치된 잠수함은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큰 위협요소로 등장하였다.<sup>28)</sup>

25) 박준홍,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 (서울 : 박영사, 1981), p. 433.

26) 한재덕, 『북한총람』 (서울 : 공산권문제연구소, 1969), p. 541.

27) 조부근, 전계서, p. 53.

28) 한재덕, 전계서, p. 542.

〈표 Ⅲ-3〉 자립 및 방어강조기의 북괴 해군력

연 도 구 분	1963년	1968년	비 고
병 력	8,800명	9,000명	200명 증가
잠 수 함		4척	4척 증가
대형 초계정	14척	14척	
경 비 정		70척	70척 증가
어 퇴 정	21척	30척	9척 증가
소 해 정	30척	30척	
보 조 정	20척	20척	
보조함정	10척	10척	
계	95척	178척	+83척 증가 (연평균 6척 증가)

〈출처 : JANES FIGHTING SHIP, 1963, 1968〉

공격능력 강조기에서 1974년 4월 월남의 공산화는 모택동(毛澤東)식의 유격 전략이 김일성에게 돋보이게 함으로써 독자적인 군사전략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는 북괴의 군사활동에서 종전의 각종 훈련을 공격훈련으로 전환하게 하였고, 북괴는 부대의 재편이나 이동없이 현위치에서 즉각적으로 공격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육·해·공군을 준비토록 하였다.<sup>29)</sup>

이 시기의 전력구조상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잠수함의 증가, 둘째, 유도탄 고속정의 보유, 셋째, 고속상륙정의 보유, 넷째, 함정의 대형화이다. 1970년대 이전의 북괴 해군은 중·소로부터 원조 받은 어뢰정, 포함(砲艦) 등 소형 함정이

29) 강인덕, 『북한전서 1945~1980』, (서울 : 극동문제 연구소, 1980), p. 412.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70년대 초 이후에는 잠수함, 호위구축함 등을 자체 건조하고, 함대함유도탄 STYX로 무장된 유도탄정을 보유함으로써 해군전력에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sup>30)</sup>

이에 따라 해군조직도 바뀌어서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해 및 서해함대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동해함대 예하에는 장전, 원산, 퇴조, 마양도, 유진만, 차호, 김책 등 7개 기지에 8개 전대가 있었으며, 서해함대사령부 예하에는 사곶, 초도, 남포, 비파곶, 다사리 등 5개 기지에 5개 전대가 있다. 따라서 북괴 해군은 동·서해 모두 2개 함대사령부 예하에 12개 기지와 13개 전대를 두었다.<sup>31)</sup>

〈표 III-4〉 공격능력 강조기의 북괴 해군력

구 분		연 도	1969년	1977년	비 고
병 력			9,000명	25,000명	+16,000명, 연평균 +2,000명
잠 수 함	W		4척	4척	연평균 +0.8척
	R			6척	
유도탄정	OSA			8척	+18척, STYX 장착
	KOMA			10척	
대형 호위함				3척	+3척
대형 초계함			14척	21척	+7척, 연평균 +0.9척
포 함			70척	100척	+30척, 연평균 +4척
어뢰정			30척	150척	+120척, 연평균 +15척
상륙정				90척	+90척, 연평균 +11척
기 타			60척		
계			178척	392척	+214척, 연평균 +27척

〈출처 : JANES FIGHTING SHIP, 1969, 1977〉

30) 상계서, p. 438.

31) 상계서.

공세적 군사태도 발전기의 군사정책은 독자적인 군사노선의 추구로 1970년대 초에 이미 수적 우세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전략적 우세로 전환키 위하여 함정의 대형화로 균형함대(均衡艦隊)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 말에는 어느 정도 함정의 대형화를 이룩하였으며, 전략적 우세와 공격적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더욱이 1977년 8월, 50해리 군사수역과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는 보다 원거리 작전능력 보유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 기간중 잠수함은 11척이 증가하여 총 26척이 되었고 연평균 0.6척이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잠수함은 자체 건조한 R급이었으며 유도탄정은 47척으로 증가하였다. 고속정의 경우 1979년 이전까지는 속도가 느려 일반선박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1980년부터는 고속화에 성공하였으며 대부분 자체에서 건조하고 있다. 또한 북괴 해군의 가장 큰 약점을 보완하는 내해성(內海性)과 외항(外航)능력을 갖춘 대형 전투함 건조의 일환으로 나진급 호위구축함과 사리원급 대형 초계정을 자체 건조하였다.

〈표 III-5〉 공세적 군사태도 발전기의 북괴 해군력

구 분 \ 연 도		1978년	1998년	비 고
병 력		27,000명	47,000명	+6,000명, 연평균 +1,000명
잠수함		15척	26척	+4척
유도탄정		18척	47척	+29척
어뢰정		157척	198척	+37척
대형 호위함		3척	3척	
초계정		21척	174척	+154척
상륙정	LCM/CCU	20척	30척	10척
	남포급	70척	230척	+160척
계		404척	708척	+305척

〈출처 : JANES FIGHTING SHIP, 1978, 1998〉

특히, 이 기간중에는 상륙전 함정이 급격히 증강되었는데, 이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의 일환으로서 정규 특수부대의 은밀침투와 대부대의 기습상륙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북괴 해군은 자체 생산한 계류 및 감응기뢰 등으로 수상함, 잠수함 및 항공기로서 공격기뢰전과 방어기뢰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괴 해군의 공세적 무기체계의 증가와 함정의 대형화 추세는 해·공 합동훈련과 강습(強襲)훈련의 강화와 함께 대함 공격 및 해상병참선 차단능력을 향상시켰다.

### 3. 북괴 해군전략의 개념

#### 가. 북괴 해군전략의 기원

북괴의 대남 군사전략은 선제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혼란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기동화부대를 고속으로 종심깊이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추가적인 증원 이전에 전남한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 개념의 전략이다.

이러한 군사전략 개념은 북괴 해군에도 영향을 미쳐왔고 그 뿌리인 김일성의 군사사상과, 중·소의 영향, 그리고 한국전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북괴 해군전략의 기원을 중·소의 영향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북괴 해군의 기원은 소련의 군사력임을 알 수 있다. 인민군 창설초기 교육은 소련 고문단 장교들의 지도하에 정치학, 전술학, 참모학 등이 실시되었고, 무기체계도 소련으로

---

32) 골시코프(Gorshkov)는 해군력 발전의 본질은 지형, 경제력, 지도자의 성격, 전쟁경험, 적의 본질, 작전연구기법에 있다고 하였다. 김현기, "골시코프(Gorshkov) 전략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1982), p. 2. 따라서 북괴 해군력 발전 요소도 한국전쟁의 경험과 김일성의 영향, 그리고 창군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부터 도입함으로써 소련의 군사사상은 북괴군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소련 해군의 전통전인 해군전략은 연안방어전략과 지상군지원전략이다. 이는 신흥학파(新興學派)<sup>33)</sup>의 영향으로 주로 통상파괴전을 수행하고 고속어뢰정과 잠수함으로 전함을 무용지물화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리는 잠수함, 고속정, 기뢰 및 항공기에 의한 협조된 행동으로 지상군을 최대한 지원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소련 해군의 연안방어 중심적인 해양전략은 북괴 해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북괴는 연안방어 위주의 전략, 잠수함 위주의 전략, 기뢰전 전략, 대병력 전략 및 다수함정 보유 전략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sup>34)</sup>

또한, 김일성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면, 김일성의 전략사상은 오늘날 북괴군의 군사전략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의 항일유격대로 소규모의 매복(埋伏)전투에 참가한 경험을 혁명전투의 전형으로 미화하여 군사전략화하였는데, 이 개념들은 군사전략에서 비정규전을 매우 중요시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비정규전 사상이 해군전략에 미친 영향은 북괴의 군사전략 구상 중 '전중심의 동시전장화'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북괴 정규 주력부대의 지상공격에 선행하여 많은 특수부대 요원을 남한 전역에 침투시켜 일제히 습격 및 파괴행동을 자행함으로써 '전중심(縱深)의 동시전장화'를 시도하며, 해안침투부대는 남한의 동·서·남해안을 가리지 않고 침투시키거나 대규모 정규 상륙부대로서 상륙작전을 시도하고 남한의 해상수송로를 봉쇄하여 한국의 전략요충지와 산업시설 등을 파괴, 우방으로부터 수송되는 전략물자의 양륙을 방해한다는 것이다.<sup>35)</sup>

33) 신흥학파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오브 제독을 중심으로 정통학파(Old School)에 반기를 든 전략가들의 이론으로 순양함으로 통상파괴전을 수행하고 고속어뢰정과 잠수함으로 전함을 무용지물화한다는 이론이다. 신흥학파 이론의 전략 목표는 주로 통상파괴전 수행으로 경제교란에 있었다. 이러한 이론은 소련과 중국 등 주로 공산권 국가에 영향을 주었다. 김종기, 전계서, p. 69.

34) 조부근, 전계서, pp. 85~93.

35) 배명오, 전계서, p. 72.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의 영향은 전쟁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북괴의 초기공세는 극히 성공적이었으나, 미군의 즉각적인 개입과 해·공군의 열세로 전세는 역전되어 북괴의 무력남침은 저지되었다. 특히,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북괴 지상군은 방어적인 형태로 작전을 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북괴 해군은 한국 해군과 유엔군의 해군력에 의해 차단됨으로써 더 이상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북괴는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완전히 해양통제권을 상실하였고,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항모의 근접항공지원, 기동함대의 함포지원, 인천상륙작전, 한국의 지속적인 병참선 유지로 북괴의 전쟁목표 달성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36)</sup> 이러한 초기 북괴 해군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고찰해 본 결과 소련 해군으로부터는 연안방어와 지상군작전지원, 통상과 괴전, 한국전쟁으로부터는 연안방어의 중요성을 김일성의 사상으로부터는 지상군작전지원을 위한 해군전략을 터득하게 되었다.

#### 나. 북괴 해군전략의 개념과 목적

북괴의 해군전략을 해군전략 형성과정과 해군전력 증강과정 및 전력구조상에서 보면, 첫째, 연안방어 위주의 전략, 둘째, 잠수함 위주의 전략, 셋째, 기뢰전 위주의 전략, 넷째, 상륙전 위주의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37)</sup>

이러한 북괴의 해군전략을 작전적 수준에서 재정의해 보면, 첫째, 연안방어 위주의 전략으로 북괴 해군은 소형 패속함정으로 해안포의 사정거리내에서 연안 경비와 기습공격에 주력하는 연안방어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8)</sup> 이러한 전략은 한국전쟁의 교훈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전쟁중 유엔군의

36) 한국전쟁 당시 막강한 유엔군 해군에 제동을 건 무기는 기뢰였다. 이로 인해 북괴의 기뢰부설이 국지적이고 방어적임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함정은 수심 100페덤 이상에서 작전을 해야 했다. 김종기, "기뢰전사" 『해양연구논총』 제11집 (진해 : 해군사관학교, 1991), pp. 90~96.

37) 조부근, 전게서, pp. 85~89.

38) 한재덕, 전게서, p. 541.

인천상륙작전, 연안봉쇄, 함포지원사격 등으로 인해 전쟁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자 비로소 연안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북괴군은 유엔군의 해군력 투사 즉, 인천상륙작전을 허용함에 따라 낙동강까지 내려왔다가 결국 패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북괴 해군전력의 절대적 열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로 북괴는 연안방어전략 수행을 위해 지상의 무기체계와 연안에서 활동이 용이한 소형 고속함정체계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판단된다.<sup>39)</sup>

둘째, 잠수함 위주의 전략은 북괴 해군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략으로 북괴 해군은 1960년대 중반부터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해군에 대하여 전략적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잠수함 위주의 전략은 잠수함이 가지는 은밀성과 한반도 주변의 해양환경 특성으로 인해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더해 주었고, 북괴는 통상파괴전과 함대봉쇄전략을 수행 한국의 전쟁지속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셋째, 기뢰전 위주의 전략으로 기뢰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다른 어떤 무기체계보다도 전략적 무기로 인식되어 왔다. 북괴 해군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소련 해군으로부터 기뢰에 대한 기술과 무기 지원으로 상당한 수준의 기뢰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한국전쟁시 중요 항구에 방어용 기뢰를 부설함으로써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현재 북괴 해군은 항공기, 수상함 및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기뢰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상륙작전 위주의 전략으로 북괴 해군은 130여 척의 공기부양정을 자체

---

39) 김현기, 전계서, pp. 2~5. 유엔 해군의 함포지원은 인천상륙작전과 흥남 철수를 비롯하여 1951년 5~6월, 9월에 있었던 유엔군의 두 차례 공세를 지원하였고, 흥남과 청진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 그리고 해주와 진남포에 이르는 서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함포지원사격으로 도시, 해안시설, 육상병참선 등을 파괴하였다. 이 당시 북한은 수상함대나 공군력을 이용하여 유엔군의 함포지원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전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았다.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공기부양정 1척은 지상군 1개 소대 규모의 무장병력을 승선시켜 목표지역에 기습상륙시킬 수 있다. 공기부양정은 해상은 물론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하므로 동·서해안 대부분 지역에 접안할 수 있고, 특히, 공기부양정은 50노트 이상의 고속기동으로 생존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개전초 동시 다발적인 기습상륙능력을 보유하고 있다.<sup>40)</sup> 이러한 기습상륙작전은 북괴의 군사전략 중 배합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지상군의 작전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기체계 측면에서 본 북괴 해군의 전략을 작전적 수준으로 보면, 북괴 해군은 군사전략 개념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① 연안방어전략, ② 지상군지원전략, ③ 남한의 전쟁지속능력 저하 전략을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겠다.

#### IV. 북괴 해군전략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

전통적인 해군전략이론의 유형에는 함대결전 전략, 현존함대전략, 요새함대 전략, 함대봉쇄전략, 통상과괴전 전략이 있음을 제2장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 목표는 해양통제권의 장악이나 아니면 거부이나로 요약되며, 그 수단은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무기체계를 필요로 함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해군전략의 유형과 목표, 수단의 관계를 북괴 해군에 대입해 보면 북괴 해군의 가장 유용한 해군전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 1. 북괴 해군전략에 대한 평가

###### 가. 함대결전전략 수준

전시 북괴해군의 전략을 작전적 수준에서 정의하면, 연안방어작전전략, 지상군지원전략, 남한의 전쟁지속능력 저하 전략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40)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서울 : 국방부, 1998), p. 52.

세 가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남·북한 함대간의 결전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괴 해군이 고전적 형태의 단순한 적 함대의 물리적인 격멸을 위한 함대결전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함대결전에서 오는 위험성은 이를 달성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up>1)</sup> 따라서 과거 전통적인 의미의 함대결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부로서 부분적인 형태의 결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는 작전적 수준에서 그 목표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정도 또한 달라질 것이다.

수단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함대결전을 위한 해군력의 구조는 무엇보다 해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해군력 구조를 보았을 경우, 해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은 노후한 함정과 200톤급 이하의 소형 함정(약 83%)을 주로 보유함으로써 작전 반경의 제한과 파도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sup>2)</sup> 따라서 북괴 해군력은 일시적인 결전(決戰)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함대결전을 수행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이 따른다.

또한,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함대결전은 작전적 수준의 세 가지 전략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북괴 해군이 함대결전을 추구하여 결전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작전적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연안방어전략은 함대결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적극적 공격으로 방어를 달성하는 형태도 있지만 북괴의 해군력 구조상 부적절하다.

---

1) 과거의 함대결전은 단순히 적 함대의 격멸이었지만 함정의 기동성 증가와 유도무기의 발달로 지상의 무기체계(항공기, 야포, 유도탄) 등도 함대결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근접 교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김종민, 전게서, p. 90. 따라서 함대결전을 통해 해양통제권을 획득하더라도 현대에는 지상의 무기체계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될 수 있다. 포클랜드 해전에서도 해상통제권을 장악한 영국 해군에 대해 아르헨티나 본토에서 발진한 공군기는 해상의 사용을 적절하게 방해했다.

2) 배명현, "북한 수상함정의 함포 특성과 전술", 『적 연구지』, 제9호, (서울 : 국군정보사, 1997), p. 135.

지상군지원전략은 전력의 이용방법상 공세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 함대결전을 치를 수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기습에 의하고 그 목표도 비정규전전력의 침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전쟁지속능력 저하 전략은 그 대상이 상선선단이지 함대전력이 아니고 한국의 주요한 해상교통로 또한 동남해역에 집중되어 있어 잠수함을 제외한 북괴 해군전력의 영향권(影響圈) 외에 위치해 있으므로 북괴가 함대결전의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함대결전은 적 함대의 격멸을 통해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고 함정을 일정해역에 주둔시킴으로써 적이 해양이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적 함대의 격멸에 있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전쟁 전반에 걸쳐 영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괴 해군이 함대결전을 통해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더라도 일회성(一回性)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함대결전의 승리는 연안방어를 비롯한 작전적 목표 달성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 특히, 현대해전은 과거의 함대결전과는 해전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해상항공력의 발달과 유도무기의 발달은 해상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함대전력의 격멸이 곧 해양통제권의 장악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 나. 현존함대전략 수준

과거, 한국전쟁에서 북괴는 절대적인 해군력의 부족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해상통제권을 유엔군에게 장악(掌握) 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안방어능력의 부족으로 동·서해안에서 유엔군의 자유로운 작전을 허용하였으며 인천, 원산, 진남포 등의 상륙작전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 왔고, 지상군과 해군에 의한 유엔군의 연계작전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3)</sup>

---

3) 인천상륙작전은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전병참선을 차단, 낙동강 전선의 북괴군을 급속히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인천항만 시설과 서울에 이르는 제반 병참시설은 북진작전에 이용되어 전세를 역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윤석우, 『인천상륙작전』(서울 : 삼화, 1983), p. 343.

즉, 북괴 지상군의 일부가 연안방어에 집중케 함으로써 전력의 분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전쟁수행을 어렵게 하였으며, 유엔군의 해양통제권 행사를 거부할 해군력이 기뢰를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단적인 측면에서 현존함대전략을 분석해 보았을 때 현존함대의 전략수단은 함대이지만 그 세력은 반드시 우세한 함대를 유지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세하여도 된다. 단지, 그러한 세력의 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드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만 그 유효성이 나타나게 된다. 즉, 함대의 보유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목표달성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존함대전략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현재, 북괴 해군전력 구조 중 잠수함 전력, 상륙전 전력, 유도탄정 전력은 그 보유 자체만으로도 한국으로 하여금 대잠작전, 대상륙방어작전, 그리고 대유도탄전에 몰두하게 하고 있어 이들의 전력은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80년대 초에는 모선으로 침투해오던 간첩들이 90년대부터는 잠수함(정)을 이용한 해상침투로 변화하면서 한국의 함대세력은 북괴의 수중세력에 대해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 특히 잠수함 전력의 은밀성은 동해의 해양환경과 함께 대잠전 수행의 어려움을 더해 주기 때문에 한국 해군에게는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또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현존함대전략은 누진적(累進的)으로 적의 전력을 약화시켜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이다. 전쟁 초기 북괴 해군은 지상군지원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습상륙 세력의 침투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기지를 중심으로 북괴 함정의 속도와 해안포, 지대함 유도탄의 엄호(掩護)하에 치고 빠지는 즉, 해상에서의 유격전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점차

---

4) 동해안의 경우 소형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침투할 경우 은밀성 때문에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P-3C나, 호위함, 구축함으로는 탐색하기가 어렵다. 중앙일보 1996년 9월 21일자, 4면

적으로는 한국 해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면서 북괴 지상군의 측방을 보호하는 이 점이 있다.

현존함대전략을 작전적 목표와 연계해서 보면, 연안방어작전전략은 수단이 존재하는 한 전략의 성격이 방어적이므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 지속능력 저하전략과 지상군 작전지원 전략 또한 한국 해군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단이 존재하고 방법 또한 공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북괴가 현존함대전략을 취할 경우 북괴의 작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하겠다.

#### 다. 요새함대전략 수준

요새함대전략이란 적극적인 수세전략으로서 적 함대의 격파와는 관계없이 순수한 절대적 방어만을 목표로 함대를 보존하는 것이다. 요새함대전략을 수단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면, 요새함대의 수단은 무엇보다 함대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해안보호시설이 적 함대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북괴의 해안방어시설은 매우 위협적이어서 수단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괴는 동·서해 주요 해안에 장애물을 설치하였는데 80년대 초까지 10여 개의 지하 함정대피소를 건설하였고 여기에 함정들을 대피시키고 있다.<sup>5)</sup> 그러나 요새함대란 특정지역을 보호함으로써 전쟁 전반에 대한 영향을 미치어 궁극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북괴의 연안은 개활식(開豁式)이고 병목(CHOCK POINT)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전연안에 대해 요새화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5) 강인덕, 『북한전서』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0), p. 440.

전략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요새함대전략은 무엇보다 연안방어작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전략의 성격상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공세적 성격을 가진 지상군지원전략의 수행은 불가능하며 오직 연안방어를 달성함으로써 지상군의 측방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전쟁지속능력 저하 전략도 통상과괴전을 수행하는 등 공세적이어야 하므로 요새함대전략으로는 그 수행이 불가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요새함대전략은 전쟁초기 유리한 상황보다는 전장상황이 불리할 경우 실시할 것이다. 즉, 지대함 유도탄과 다수의 해안포를 보유한 지상기지의 엄호(掩護)하에 유리한 전장환경이 형성될 때까지는 공세를 유지하다가, 상황이 불리할 경우 요새함대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괴가 요새함대전략으로 나올 경우 전장의 주도권은 이미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북괴 전해역에 대한 봉쇄로 북괴 해군의 해양통제권 장악 또는 거부가 어려울 것이다.

#### 라. 통상과괴전 전략 수준

한국전쟁 초기에 북괴는 압도적인 전력과 기동력 및 화력으로 전술적 차원의 기습에는 성공했으나, 이를 전략적 차원의 기습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주로 제공·제해권이 유엔군측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군측이 해상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미군의 증원전력을 해상을 통해서 한반도로 자유롭게 이동시켰으며, 막대한 군수물자를 해상을 통하여 이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6)</sup>

---

6) 한국전쟁시 해상을 통한 병력 및 물자수송은 한국에 도착한 병력의 7명 중 6명이 해상으로 수송되었으며, 총 5천4백만 톤의 화물과 2천2백만 톤 유류가 선박으로 수송되었다. 이와 같이 해상교통로는 한국전쟁 기간중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허준, 전계서, p. 5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괴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을 감행한다면 전방지역의 155마일 전선에서 지상군의 주 전력을 흡수케 하는 동안 대규모의 비정규전 특수부대가 공중 또는 해상을 통해서 후방으로 침투하는 한편, 인구밀집지역, 산업시설, 교통통신시설, 항만시설, 비행장의 파괴 및 해상교통로 차단 등을 통한 전략적 기습을 노릴 것이다.<sup>7)</sup>

통상파괴전 전략을 수단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북괴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통상파괴전의 수단은 주로 잠수함 또는 잠수함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제1·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볼 때 주로 잠수함에 의해서 수행되어 졌다. 또한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통상파괴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의 해상교통로는 한반도의 동남해역으로 집중되어 있어 통상파괴전의 수행이 용이(容易)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특히, 북괴의 잠수함 성능을 고려해 볼 때 18~24발의 어뢰 또는 40발의 기뢰를 탑재할 수 있고 13,000~20,000마일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전해역은 물론이고 동지나해까지 작전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해상교통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sup>8)</sup>

통상파괴전 전략을 작전적 목표와 연계해서 볼 때 연안방어작전과 지상군지원 전략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나 통상파괴전 전략은 항만봉쇄와 같이 전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간접적으로는 지상군작전지원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는 북괴도 군수물자의 한정으로 장기 소모전의 양상(樣相)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장차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과 북괴는 통일을 목표로 하는 총력전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승패는 전쟁지속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게

---

7) 박용옥, "한국안보와 해로안전에 관한 연구", 해상교통로 안전에 관한 연구보고서(서울 : 외교안보연구소, 1983), p. 159.

8) 김연식, "한국의 국제해상수송환경 분석과 해상병참선 방어대책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제25권 제1호(서울 : 국대원, 1982), p. 148.

될 것이다. 지정학상으로 북괴는 해상교통로가 파괴되더라도 육지에 인접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육상교통로에 의지할 수 있으나<sup>9)</sup>, 한국은 지리적 여건이 해상교통로에 의존하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장차 한반도에서 이와 같은 전쟁이 다시 발발(勃發)한다면 북괴 해군은 잠수함에 의한 해상교통로 파괴와 항공기 및 잠수함에 의한 기뢰의 부설로 한국은 해상교통로 보호에 위협을 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상파괴전 전략은 수단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목표 또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북괴 해군에게는 매우 유용한 전략임을 알 수 있다.

#### 마. 함대봉쇄전략 수준

함대봉쇄전략의 수단은 전통적으로 수상함에 의해서 수행되어져 왔었다. 그러나 무기체계의 발달과 함께 그 수단은 잠수함, 항공기, 기뢰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북괴의 무기성능을 고려해 볼 때, 함대봉쇄가 가능한 수단은 잠수함에 의한 기뢰봉쇄가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되어진다.

수단적인 측면에서 북괴 해군의 해상봉쇄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북괴 해군은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함대봉쇄의 능력을 수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잠수함은 대함 기습공격작전 및 해상교통로 교란, 주요 항만에 대한 기뢰부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함대봉쇄전략의 수행이 가능하다.<sup>10)</sup>

특히, 북괴가 보유한 R급과 W급의 잠수함은 항속거리, 지리적 조건, 작전의 효율성, 재보급 등을 고려할 때 약 2,500NM 활동범위로 한반도 전해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며, 핵심 해역에서는 약 30여 일 정도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

9) 과거에는 중·소의 군사적인 지원 가능성이 높았으나 현재에는 조·중 우호조약과 조·소동맹조약의 변경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김호찬, 전게서, p. 102.

10) 이병권, 전게서, pp. 87~92.

판단된다. 또한 북괴가 보유한 10,000여 기의 기뢰와 기뢰 설치능력은 한국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잠수함에 의해 적재된 기뢰는 주요 항만과 해상 교통로에 대해 치명적인 기습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동해는 그 독특한 해저지형과 수온(水溫) 때문에 대잠수함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북괴의 잠수함 전력은 위협의 강도를 더욱 증진시킨다.<sup>11)</sup>

또한, 함대봉쇄전략을 전략의 방법 수준에서 작전적 전략과 연계해서 볼 때, 연안방어전략은 방어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나, 지상군 지원전략과 남한의 전쟁지속능력 저하 전략은 공세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함대봉쇄는 첫째, 한국함대를 봉쇄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우세권을 확보하고, 증원물자 차단으로 한국의 전쟁지속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함대봉쇄가 성공할 경우 기습상륙세력의 후방침투 및 통상파괴전의 수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북괴 해군은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함대봉쇄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북괴의 전략개념을 충족시키고 있는 유용한 전략으로 평가된다.<sup>12)</sup>

## 2. 북괴 해군전략의 한계성

전통적 해군전략 이론 수준에서 북괴 해군의 전략을 현존함대전략, 함대결전 전략, 함대봉쇄전략, 요새함대전략, 통상파괴전 전략 수준에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각 전략수준에서 북괴 해군의 수단과 목적에 대한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괴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해군력은 각 전략을 수행하는 데 많은 한계성(限界性)을 가지고 있다.

11) William Overholt, "Korea : Militay Confrontation", 남주홍 역, "한반도의 군사 대치상황", 『안보정책자료』 88-4, (서울 : 국대원, 1988), p. 30.

12)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에 있어 중요한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해상수송을 통한 병참보급 수행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요한 전쟁물자, 무기체계 그리고 지원병력을 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해상수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해상봉쇄의 효과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병권, 전계서, p. 94.

수단의 한계성을 전통적인 이론의 수준별로 고찰해 보면, 먼저 함대결전전략 수준으로 북괴의 해군력은 다수의 소형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령(船齡)이 2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또한, 북괴 해군은 지리적으로 동·서해로 구분되어 있어 운영상 불리할 수 밖에 없다.<sup>13)</sup>

결국, 이러한 해군력의 구조적인 취약성은 내해성이 부족하여 원해작전을 회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대공방어능력의 취약성, 전자전, 유도탄전, 야간전투수행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지리적인 분할은 상호지원을 배제시킴으로써 전력의 집중을 기할 수 없는 불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sup>14)</sup>

따라서 함대결전의 수행을 북괴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해상항공력의 부족은 현대 해상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취약성이 많아 해군력의 수적(數的) 우세에도 불구하고 함대결전의 수행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

둘째, 현존함대전력 수준에서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수단의 종류가 한정되는 제한사항이 있다. 특히, 현대전은 무기체계의 발달로 각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 그러나 북괴는 잠수함, 고속상륙정을 제외하고는 원거리 작전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존함대전력이 가지는 범위도 연안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재래식 함정으로 무장된 북괴 해군이 취할 수 있는 현존함대전력은 한국 해군이 상륙작전 등 공세적인 작전을 취할 경우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5)</sup>

셋째, 통상과괴전 전략수준에서는 역사적으로 통상과괴전이 잠수함 뿐만 아니라 항공기, 수상함 등에 이루어졌는데, 한국의 해상교통로의 동남해역 집중으로 그 능력은 잠수함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수함 또한 성능의 제한으로

---

13) 국방부, 『국방백서』(서울 : 국방부, 1989), pp. 179~180.

14) 임양환, 전제서, p. 79.

15) 함대의 지나친 방어적 운용은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상선의 국적 식별이 용이치 않아 그 능력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또한 북괴의 잠수함 기지는 기뢰의 공격에 대해 매우 취약하게 되어 있다.<sup>16)</sup>

넷째, 요새함대전략 수준에서 북괴의 함정은 요새화된 기지에 보호되고 있으며, 작전의 수행도 이들 수단의 보호 범위내에서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은 과거와는 달리 항공세력의 발달로 제공권이 장악되지 않는다면, 요새화된 기지들도 함정을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북괴가 요새함대전략을 취한다면 이 전략이 가지는 수세성과 함께 한국 해군에게는 덜 위협적이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섯째는 함대봉쇄전략 수준에서 그 한계성을 살펴보면, 함대봉쇄가 주는 유용성에 비해 북괴가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에 의한 기뢰봉쇄로 제한된다. 그러나 기뢰는 무기의 특성상 적아(敵我)를 식별하여 공격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뢰에 의한 항만봉쇄로 중립국 선박이 피해를 당하였을 시 북괴는 국제여론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기뢰의 사용은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sup>17)</sup> 또한 한국의 지속적인 대잠능력의 확충은 북괴 잠수함의 행동을 점점 더 어렵게 하여 함대봉쇄능력을 제한할 것이다.

따라서 북괴 해군전략의 유용성과 한계성을 전통적인 해군전략이론 수준에서 고찰해 보았을 때, 북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해군전략은 현존함대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통상과괴전 전략과 함대봉쇄전략으로 추론(推論)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북괴 해군의 작전적 목표가 배합전 수행을 위한 지상군작전지원과 북괴의 연안을 방어하기 위한 연안방어 그리고 남한의 전쟁지속능력 저하를

---

16) 임양환, 전계서, p. 79.

17) 북괴는 상당한 정도의 기뢰 부설능력과 항만봉쇄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단 이것을 유사시 사용하게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초래하기 때문에 설사 초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괴가 기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Ralph N. Clough, *deterrence and Defence in Korea*(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6), 국대원 역, 『주한미군에 관한 연구』 안보총서 7권 (서울 : 국대원, 1976), p. 25.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함정의 격멸을 위한 결전보다는 현존함대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통상과괴전 전략과 함대봉쇄전략이 북괴에게는 가장 유용한 전략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3. 북괴 해군전략에 대한 대응책

#### 가. 한국 해군의 대응전략 방안

전통적 이론수준에서 북괴의 해군전략을 분석한 결과 북괴 해군이 취할 수 있는 전략, 즉 현존함대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통상과괴전 전략과 함대봉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해군의 전략 방안으로는 ① 현존함대전략, ② 함대봉쇄전략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현존함대전략 방안은 함대가 결전을 하더라도 근접 해상전투는 피하면서 항공기에 의한 해상강습, 장거리 유도무기에 의한 북괴 해군의 격멸을 시도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함대결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세력을 보존하자는 방안이다. 역사적 사례로서 함대결전을 할 기회는 많았지만 그 실례가 많지 않았던 것도 함대결전에서의 손실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전투함은 북괴 해군에 비교하여 고가(高價)이며 임무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함대의 보유 자체가 북괴에게는 위협적일 것이며 북괴 함정으로 하여금 행동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즉, 한국 해군의 상륙작전능력, 대잠전, 대함전 능력의 보유 자체로도 북괴가 추구하는 연안방어전략, 지상군지원전략, 전쟁지속능력 저하 전략을 쉽게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함대봉쇄전략이다. 적을 해상에서 격멸하는 것보다 출항 이전에 격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적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적의 기도를 좌절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즉, 북괴의 주요 항만에 대해 공격기뢰부설로 항만봉쇄를 실시한다면, 이는 북괴의 해군전략 수행 자체를 어렵게 하고, 함정의 집중을 방해함으로써 분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적 세력을 격멸할 수 있는 기회는 증대될 것이다.

함대봉쇄의 수단은 잠수함, 항공기, 수상함 기뢰에 의한 봉쇄가 가능하지만 한국 해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잠수함에 의한 기뢰봉쇄 또는 잠수함에 의한 출항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수행은 아측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력의 집중적인 운용도 가능하여 수적 열세에 있는 한국 해군에게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함대봉쇄전략은 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전통적인 해군전략이론 중 함대결전 전략은 한국 해군의 피해가 우려되어 수적 열세에 있는 해군에게는 불리하다. 또한 요새함대전략은 한국의 지형상 수행이 불가능하며, 통상과괴전 전략은 해상을 이용한 북괴의 통상 수준과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나. 대비책(對備策)

북괴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전쟁에 대비한 해군력의 증강과 이를 통한 해군 작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북괴의 해상 도발에 대응한 대비책은 북괴 해군의 목적과 수단, 방법을 고려한 대비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대응전략 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먼저 현존 함대전략 측면에서는 함대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공격능력을 보유한 함대를 건설하여야 겠다.

① 북괴의 수적(數的) 우위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공격헬기의 확보이다. 이는 북괴의 기습상륙세력에 대비한 것으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수로의 영향을 적게 받아 항상 한국 해군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공기부양정 등의 기습상륙세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비책으로 북괴가 추구하는 지상군지원 전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② P-3C기와 같은 해상초계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한 조기경보 능력의 확대이다. 북괴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은 주로 기습에 의한 전력의 운용이다.

그러므로 조기경보 능력의 확대는 북괴 해군의 시간적인 이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 해군의 대응을 용이케 할 것이다. 또한 P-3C기는 대잠전에도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괴 해군이 잠수함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통상파괴전, 함대봉쇄전략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이점이 있다.

③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대지 공격능력을 갖춘 함정의 군사력 투사능력의 확대이다. 이는 실질적이 해양통제권 행사능력을 갖추으로써 북괴로 하여금 연안방어를 강요하게 하여 전력 분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북괴지도부로 하여금 한국 해군의 위협을 인지케 할 수 있어 현존함대전략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④ 상륙전 전력의 확보이다. 북괴는 한국전쟁에서 상륙작전에 대한 충분한 위협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한국 해군의 상륙작전능력의 보유는 어떠한 전력의 위협도보다 북괴가 느끼는 실질적인 위협도는 매우 커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즉, 해상공격헬기, 원거리 초계능력, 대지공격능력과 상륙전 전력과 같은 군사력 투사의 수단의 보유는 현존함대전략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함대봉쇄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① 기뢰부설(機雷敷設) 능력의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잠수함, 항공기, 수상함에 의한 기뢰부설 능력을 확충하여 북괴 해군을 해상에서 저지하기 보다는 출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여야 하겠다.

② 수중전력(水中戰力)의 강화이다. 이는 잠수함이 가지는 은밀성과 함께 출항단계에 있는 북괴 함정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출항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괴로 하여금 잠수함의 위협을 느끼도록 할 수 있어 북괴가 이에 대한 대비시 노력과 전력의 분산도 강요할 수 있고, 또한 수중전력을 공세적으로도 운용 가능하여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③ 수상함정(水上艦艇)의 대형화와 장거리 유도무기의 보유이다. 함대봉쇄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해상상태, 작전지속능력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보유로 핵심연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북괴의 전략은 기습과 속도에 의한 군사전략을 바탕으로 하므로 출항단계에서부터 봉쇄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유도무기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괴 해군의 전략에 대응한 대비책은 우리 한국 해군이 지향(指向)하는 대양해군 건설 방향과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해군력을 건설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한번 건조된 무기체계는 20~30년 정도 사용되고 있어 전략을 결정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북괴 해군에 대비한 대비책은 대북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해군력의 건설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 V. 결 론

전략의 개념은 이를 달성하려는 목적과 수단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방법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전략의 개념을 형성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제기된 모든 이론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통이론 수준에서의 해군전략도 이러한 틀로 분석이 가능하며, 본 논문의 목적인 북괴의 해군전략의 분석도 이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하겠다.

전통적인 해군전략의 이론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목표는 해양통제권 장악 또는 해양통제권 거부에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목표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작전적 수준의 전략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완성된다 하겠다. 북괴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군전략의 목표는 해양통제권 거부로 연안방어전략, 지상군지원 전략, 남한의 전쟁지속능력 저하 전략을 달성함으로써 해군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해군전략의 수단 중 해군력은 전략사상에 따라 각 나라들마다 건설되어져 온 것이 다르지만 주로 해양강국과 경제대국들은 통제형 형태의 해군력으로 항공모함(航空母艦)을 비롯한 대형함 위주의 해군력을 건설하여 왔다. 그리고 대륙강국들은 소형함을 위주로 하여 통제형 해군에 대응, 강대국의 해양통제권 장악을 거부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하여 왔다. 북괴의 경우는 강대국의 통제형 해군에 대응하는 거부형 형태의 해군력으로 200톤 미만의 함정이 전체 85%를 차지하는 해군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괴 함정은 고속 소형 함정과 잠수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거부형 형태의 해군력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북괴 해군의 목표는 해양통제권의 장악보다는 해양거부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하겠다.

전통적인 해군전략의 이론수준에서 해군전략은 함대결전전략, 함대봉쇄전략, 요새함대전략, 통상파괴전 전략, 현존함대전략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선택은 보유중인 해군력과 그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북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전통적인 해군전략은 현존함대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통상파괴전 전략과 함대봉쇄전략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북괴 해군의 작전적 목표가 군사전략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합전 수행을 위한 지상군작전지원과 북괴 연안방어를 위한 연안방어 그리고 남한의 전쟁지속능력 저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함정의 격멸을 위한 결전보다는 현존함대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통상파괴전 전략과 함대봉쇄전략이 더 유용하다.

이에 대한 우리 한국 해군의 대응전략은 북괴 해군의 해상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면서 해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이 취할 수 있는 전통적인 해군전략이론은 현존함대전략과 함대봉쇄전략이다.

현존함대전략은 해군력이 건재(健在)하고 해군력이 북괴에게 위협적으로 인식될 때 성공할 수 있다. 또한 함대봉쇄전략은 전시 아 해군의 피해를 줄이고 전력의 집중을 기할 수 있어 유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군력에서 보다 북괴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한국 해군의 대비책은 해상공격헬기의 보유, 조기경보 능력의 확충, 대지공격과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군사력 투사능력 보유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또한, 함대봉쇄전략 수행을 위해서는 수중전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기뢰부설 능력의 보유 그리고 수상함에 의한 실효적인 봉쇄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함정의 대형화와 장거리 유도무기를 보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북괴 해군의 전략에 대비한 대비책은 우리 한국 해군이 지향하는 대양해군의 건설방향과 동시에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해군력을 건설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한번 건조된 함정은 한국 해군의 실정으로 보아 20~30년 정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북 위협에도 대응하고 주변국의 위협에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해군력의 건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강영오, 『한반도 해상전략론』, 서울 : 병학사, 1988.
- 강인덕, 『북한전서』,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0.
-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서울 : 국방부, 1998.
- 국제문제 연구소, 『방위연감 1995~1996』, 서울 : 국제문제연구소, 1995.
- 국토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 국토통일원, 1983.
- 김종기, 『해양전략개론』, 대전 : 해군대학, 1997.
- 김종민, 『전쟁과 해양전략』, 서울 : 이성과 현실사, 1993.
- 김호찬, 『북한정세』, 해군대학 교재, 대전 : 해군대학, 1998.
- 민병천, 『한국방위론』, 서울 : 고려원, 1983.
- 박준홍,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 서울 : 박영사, 1981.

- 배명오, 『한반도 북방군사론』, 서울 : 거목, 1986.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 서원식, 『북한전략사상 신문』, 서울 : 한원, 1991.
- 윤석우, 『인천상륙작전』, 서울 : 삼화, 1983.
- 이기전, 『북한은 어디로 가나』, 서울 : 내외문제연구소, 1980.
- 이영민, 『군사전략』, 서울 : 송산출판사, 1991.
- 정명하 외, 『세계전쟁사』, 서울 : 일신사, 1993.
- 최 명, 『북한개론』, 서울 : 을유문화사, 1991.
- 최병갑 외, 『군사전략 대강』, 제1권. 서울 : 을지서적, 1988.
- 한재덕, 『북한총람』, 서울 : 공산권 문제연구소, 1969.
- 해군대학, 『한국해전사』, 대전 : 해군대학, 1995.
-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 해전교0-1. 대전 : 해군본부, 1996.
- 해군본부, 『해전사』, 서울 : 해군본부, 1976.

## 2. 논문 및 정기간행물

- 고성윤, “북한의 군사정책 노선과 군사력 건설방향”, 『국방연구원연구보고서』, 서울 : 국방연구원, 1996.
- 권영효, “북한 배합전 위협과 대응전략”, 『국방연구』 제26권 제2호, 서울 : 국대원, 1990.
- 김연식, “한국의 국제해상 수송환경 분석과 해상병참선 방어대책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제25권 제1호, 서울 : 국대원, 1982.
- 김종기, “기뢰전사”, 『해양연구논총』 제11집, 진해 : 해군사관학교, 1991.
- 김현기, “골시코프 전략사상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국대원, 1982.

- 남주홍, “한반도의 군사대치상황”, 『안보정책자료 88-4』, 서울 : 국대원, 1988.
- 박용옥, “한국안보와 해로안전에 관한 연구”, 해상교통로 안전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 : 외교안보연구소, 1983.
- 배명현, “북한 수상함정의 함포 특성과 전술”, 『적 연구지』 제9호, 서울 : 국군정보사, 1997.
- 우준식, “해상통상파괴전의 현대적 개념과 적용에 관한 고찰”,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국대원, 1989.
- 이병권, “해상봉쇄의 현대전략적 의의와 발전”,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국대원, 1991.
- 이상갑, “무기체계와 해양전략의 상관관계”,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국대원, 1994.
- 이지두, “러일해전연구”, 『해양전략』 제12호, 진해 : 해군대학, 1982.
- 임양환, “균형함대의 현대적 개념과 적용”,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국대원, 1990.
- 정삼만, “현존함대전략의 현대적 적용과 발전”,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국대원
- 조부근, “북한의 해군전략 사상발전에 관한 연구”, 해군대학 논문, 진해 : 해군대학, 1981.
- 조한길, “북한 해군의 전략에 관한 소고”, 『해양전략』 제99호, 대전 : 해군대학, 1998.
- 허 준, “한국전쟁시 해군력 운용과 역할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국대원, 1989.
- 황규원,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해양전략 비교와 한반도 적용”,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국대원, 1990.

### 3. 외국서적

- Brodie, Bernard. *A Guide to Naval Strategy*. Westport : Greenwood Press, 1977, 해군본부 역, 『해군전략 입문』, 서울 : 해군본부, 1963.
- Booth, K., *Navies and Foreign Policy*. London : Croom Helm, 1997.
- Clough, Ralph N., *Deterrence and Defence in Korea*.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6, 국대원 역, 『주한미군에 관한 연구』 안보총서 제7권, 서울 : 국대원, 1976.
- Corbett, Julian S., *Some Principle of Maritime Strategy*. London : Longman Green and Co., 1918, 해군본부 역, 『해양전략의 원칙』, 서울 : 해군본부, 1986.
- IISS, *MILITARY BALANCE, 1992~1993, 1994~1995, 1996~1997, 1998~1999*.
- *JANES FIGHTING SHIP, 1962, 1963, 1968, 1969, 1977, 1978, 1998*.
- Mahan, Alfred T., *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Principles of Military Operation on Land*, 이윤희 · 김득주 역, 『해군전략론』, 서울 : 동원사, 1974.

### 4. 일간지 및 기타

- 『중앙일보』, 1996. 9. 21.



‘海洋戰略’은 여러분의 軍事研究誌입니다. 서로 돌려  
가면서 活用하시고 읽기를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海 洋 戰 略(第102號)

1999年 3月 22日 印刷

1999年 3月 31日 發行

編輯：海 洋 戰 略 研 究 部

發行：海 軍 大 學

印刷：海 軍 印 刷 廠  
(第1印刷支援隊)

〈非 賣 品〉